

碩士學位 論文

# 地方政府의 通商政策에 관한 研究

－ 濟州道の 對日本 農산물 交易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永 哲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姜 寬 保

1995

# 地方政府的 通商政策에 관한 研究

— 濟州道の 對日本 農산물 交易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永 哲

위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5年 12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姜 寬 保

姜寬保의 行政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5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申 夫 梁  
姜 寬 保  
姜 寬 保

# 目 次

第 I 章 序 論 .....	1
第 1 節 研究의 意義와 目的 .....	1
第 2 節 研究의 範圍 .....	3
第 3 節 研究의 方法 .....	4
第 II 章 地方政府的 通商政策에 대한 理論的 考察 .....	5
第 1 節 地方政府 通商정책 論議의 背景 .....	5
第 2 節 世界化와 地方政府的 通商정책 .....	7
1. 地方政府 通商정책의 概念 .....	7
2. 地方政府的 世界化와 通商交流 .....	8
第 3 節 UR/WTO 協定과 農産物通商정책과의 關係 .....	10
1. UR/WTO協定과 農산물개방 .....	10
2. UR協商이 濟州農産物 通商정책에 미치는 影響 .....	11
第 4 節 地方政府 通商政策의 方向과 課題 .....	15
1. 地方政府 通商政策의 方向 .....	15
2. 지방정부 通商정책의 課題 .....	16
第 III 章 地方政府的 通商정책에 대한 實態 및 事例 .....	18
第 1 節 韓國地方政府的 通商政策 .....	18
1. 지방정부의 通商交流 지원 活動 .....	18
2. 地方의 通상지원조직 운영 實態 .....	24
3. 全國의 農林水産物 通상교류 實態 .....	27
4. 韓國의 지방정부 通商정책 사례 .....	33

第 2 節 濟州道の 通商政策	39
1. 濟州道の 通商교류지원 활동	39
2. 通商교류지원 조직운영 실태	47
3. 濟州道の 농림수산물 通商교류 실태	51
第 3 節 外國 지방정부의 通商정책	57
1. 日 本	57
2. 美 國	60
3. 英 國	63
4. 中 國	66
第 IV 章 濟州道の 對日 通商정책의 問題點	71
第 1 節 對日通商 市場개척의 隘路와 限界	71
1. 對日輸出 조직의 非合理性	71
2. 市場정보수집 및 傳達體系의 非組織化	72
3. 商品 홍보수준의 落後性	73
第 2 節 通商構造上的 問題	73
1. 수출상품 構造의 脆弱性	73
2. 價格 및 非價格 競爭力의 弱化	74
3. 對日 마케팅력의 不足	75
第 3 節 對日 農産物 通商障壁의 問題	75
1. 두터운 關稅障壁	75
2. 까다로운 수입절차	76
第 4 節 物流費用的 過多로 인한 價格競爭力의 脆弱性	78
1. 物流費用的 過多	78
2. 유통체계의 비합리성	80
第 5 節 濟州道産 農産物에 대한 差別的 認知度 不在	83

第 V 章 濟州道の對日 通商政策의 發展方向	87
第 1 節 對日 農産物 通商교류의 開拓擴大	87
1. 對日 수출기구의 整備	87
2. 시장정보수집 및 傳達 體系의 組織化	88
3. 농산물 海外販促 및 弘報活動強化	89
4. 在日僑胞의 協力 및 活用	91
第 2 節 對日 農産物 通商構造의 調整	92
1. 産業構造의 水平分化的 推進	92
2. 가격 및 비가격 競爭力의 提高	93
3. 對日輸出 마케팅 活動의 強化	94
第 3 節 對日 農産物 通商障壁의 解決	95
1. 關稅 및 非關稅 障壁의 除去	95
2. 輸出 農産物의 檢疫充實化와 절차 簡素化	96
第 4 節 農水産物 輸出 流通 體系의 改善 運營	97
1. 物流 비용 低減 대책의 講究	97
2. 유통체계의 개선 보완	99
第 5 節 對日 輸出農産物의 差別的 認知度 提高	102
第 VI 章 要約 및 結論	105
參 考 文 獻	109
ABSTRACT	116

## 表 目 次

〈표 II-1〉 국제화와 세계화 .....	9
〈표 II-2〉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개방 내용 .....	12
〈표 II-3〉 감귤의 개방피해 .....	13
〈표 II-4〉 기타 농산물 개방피해 .....	14
〈표 II-5〉 경제·산업 국제통상교류의 시책유형 .....	15
〈표 III-1〉 지역별 통상교류 품목 .....	19
〈표 III-2〉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현황('94) .....	20
〈표 III-3〉 해외물산전 참가 및 상설전시장 운영현황('94) .....	22
〈표 III-4〉 농림수산물 통상교류 현황 .....	28
〈표 III-5〉 연도별 수출동향 .....	29
〈표 III-6〉 지역(군별) 특화상품 통상교류 추진현황 .....	30
〈표 III-7〉 대일본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	32
〈표 III-8〉 통상교류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사업현황 .....	40
〈표 III-9〉 제주도내 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 .....	48
〈표 III-10〉 지방정부의 상호교류실적('94) .....	49
〈표 III-11〉 제주도내 사회단체의 자매결연 현황 .....	49
〈표 III-12〉 제주도의 농수산물 교역현황('95) .....	52
〈표 III-13〉 제주도의 교역품목수 .....	52
〈표 III-14〉 연도별 제주도의 교역실적 .....	53
〈표 III-15〉 제주도의 대일본 교역현황 .....	53
〈표 III-16〉 감귤수출 추진현황 .....	54
〈표 III-17〉 캐나다수출에 따른 손실보전내역 .....	55
〈표 III-18〉 연도별 감귤생산 추세 .....	55

〈표 Ⅲ-19〉 일본 지방정부의 통상교류 사례 .....	57
〈표 Ⅲ-20〉 산업유사성을 고려한 일본 지방정부의 자매결연 사례 .....	59
〈표 Ⅲ-21〉 미국 주정부연합 농산물 그룹현황 .....	61
〈표 Ⅲ-22〉 중국 지방정부 조직표 .....	70
〈표 Ⅳ- 1〉 주요국의 대일수출가격 경쟁력 지수 비교.....	74
〈표 Ⅳ- 2〉 일본의 수입농수산물 검역 절차.....	77
〈표 Ⅳ- 3〉 감귤의 유통마진 .....	79
〈표 Ⅳ- 4〉 감귤의 유통비용 .....	80
〈표 Ⅳ- 5〉 일본시장에서의 한국농산물과의 경쟁상대국 .....	84
〈표 Ⅳ- 6〉 대일 수출농산물의 가격경쟁력 .....	84
〈표 Ⅳ- 7〉 대일수출 농산물의 인지요인별 평가 요소.....	85
〈표 V- 1〉 재일교포 활용방안 .....	91



## 그림 목次

〈그림 Ⅱ- 1〉 지방정부의 통상교류 과제 .....	17
〈그림 Ⅲ- 1〉 연구집행형 통상협력실 조직형태 .....	25
〈그림 Ⅲ- 2〉 연구전담형 통상협력실 조직형태 .....	25
〈그림 Ⅲ- 3〉 (주) 제주교역을 통한 해외시장 정보망 체계도 .....	42
〈그림 Ⅲ- 4〉 제주도 농수산 통상교류의 정보전파 체계 .....	43
〈그림 Ⅲ- 5〉 제주도의 국제통상협력 조직 .....	47
〈그림 V- 1〉 대일 농산물 통상기구의 조직 및 기능 .....	88



# 第 I 章 序 論

## 第 1 節 研究의 意義와 目的

오늘날 국제사회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속도와 규모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그야말로 世界史의 大轉換 (Great Transformation)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는 레이몬드 버논이 예견한 바 있는 국가주권을 초월한 세계경쟁의 등장(Sovereignty at Bay)을 가시화 시켜주고 있다.<sup>1)</sup>

더욱이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과학기술의 혁명은 情報高速道路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하여 商品과 技術과 勞動은 물론 사상과 문화까지도 전통적인 국경의 벽을 넘어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전혀 예상키 어려운 激變의 時代를 실감케하고 있다.

이렇게 世界化의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高度情報化 時代의 일반적 국제관계인 국가 대 국가의 교류관계가 새로운 형식으로서의 地方政府와 地方政府 단위의 교류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의 물결은 외부적 충격에 약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다국적 기업 또는 선진국가에 의한 경제 뿐만 아니라 문화의 종속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미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몰고온 새로운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참하지 못하는 지역은 능동적으로 대처한 다른지역에 예속되거나 종속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地球村 開放化 時代의 중요한 생존전략으로서 地方이 주체가 되어 국제도시간 통상 교류협력을 통한 시장개척 등 세계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1) Raymond Vernon, *Sovereignty at Bay*, New York : Basic Books, 1971, Chapter 1.

2) Chung-in Mo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ird World Bilateralism*, College Park, DMV : University of Maryland, 1984, Chapter 1. 분정인의, 제주교육의 세계화(제주도교육청, 1995), PP. 13~18.

全世界的인 추세 이다.<sup>3)</sup>

지금까지는 통상교류라하면 국가 대 국가간의 외교나 무역 중심의 개념으로만 인식이 되어 왔으며 지역실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제한적 통제하에서 여러가지 경험과 여건의 미숙은 물론 예산등의 뒷받침이 없어 이에대한 정책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의 경우도 해외시찰, 방문, 자매결연 위주의 인적교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실질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통상교류가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제 GATT 체제하에서 자유무역의 예외로 취급되어 왔던 농산물이 UR협상 타결로 WTO체제에 흡수됨으로써 지방단위의 농산물 통상교류도 무한경쟁 시대를 맞게 되었다. 1차산업 의존도가 월등히 높은 제주지역의 통상교류도 급변하는 세계화 환경에 발맞추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농가소득('94)은 가구당 22,172천원으로서 전국 평균치보다 9%나 높아 전국에서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비중이 지역총생산(GRP)의 32%(전국은 10.9%)이고 농업인구도 경제활동인구의 33.5%로서 전국평균 14.8%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감귤산업은 관광과 더불어 2대 지주산업으로서 도내 총생산(2조 3,370억원)의 20%, 농업총조수입(8,383억원)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도민의 생존산업인 데 1995년부터 수입되는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개방에 우선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크나큰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의 농업은 육지부와는 달리 밭농사 중심에다가 50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이 30%이하로서 전국 42%에 비해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농산물을 세계최대로 수입하는 즉 연간 613억불씩이나 수입하고 있는 일본시장이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해 있어서 청정 무공해 지역산품의 교역수준만 높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 잠재력이 무한한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력과 전환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sup>4)</sup>

3) 鈴木俊一,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日本國自治體國際化協會, 1994. PP.5~6.

4) 신구범, "WTO 원년, '95년 제주농정의 방향", 「제주의 농업과 경제」, 제주대학교 제주농업발전연구소, 1995.3.4. P.8.

상장의 잠재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쟁 수출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이 논문의 의의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렴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는 통상교류의 이론적 정의와 실증적 모델을 정립하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추진하여 온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지방정부의 통상교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방향과 좌표를 설정함으로써 호보단계에 있는 지방정부 수준의 통상정책에 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第2節 研究의 範圍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는 국제간의 통상교류 중 제주도 지방정부의 대일본 농수산분야 통상교류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통상교류는 ①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 ② 지방(도시) 정부간의 교류 ③ 민간단체(개인)와 단체의 교류로 대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①의 영역 즉, 국가간의 교류는 제외하고 ②의 영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의 지방정부중에서도 일본지역중 제주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다.

최근에 와서 대북한간의 교류에 대한 문제가 관심있게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통상교류연구의 한 분야로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 또한 후행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2. 시간적 범위

지방단위의 통상교류에 대한 분석범위는 세계무대를 향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던 88올림픽을 기점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995년 현재까지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경우에 따라서는(특히, 외국의 경우) 그 이전의 자료도 분

석하고자 한다.

전체의 맥락을 시간적 관점에서 비교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대한 의의와 흐름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국가정책과 맥락을 같이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1986년 미국 하와이주와의 국제교류를 시발로 본격화된 국제화 노력에서부터 1994년 문민정부가 호주 시드니의 세계화 선언 이후까지의 국내외 통상교류정책 사례들을 비교분석 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었다.

### 3. 내용적 범위

지방정부의 통상교류의 내용을 교류목적과 대상에 의해 분류해 보면 교류목적의 분류는 ① 일반적교류 (행정교류, 어학연수, 정보교환, 자매결연, 우호친선 등)와 ② 통상(경제) 교류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①의 영역 즉, 일반적교류 분야보다는 ②의 영역인 지방정부 차원의 순수한 통상교류 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 第3節 研究의 方法

지방정부의 통상교류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 사례는 아주 일천한 실정이어서 적절한 연구방법을 설정하기에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94. 11월 호주의 시드니에서 문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을 천명하면서 공식·비공식으로 많은 자료들이 산발적으로 발표되고 있을 정도로 초보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 연구되어진 자료들이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서적, 논문, 신문 등을 기초로 하되, 일본의 국제통상·교류 관련 서적·보고서를 참고하고 도·시군 자체에 업무상 축적된 내부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비교분석 하는 데에 대해서는 기술적(descriptive) 방법을 중심으로 하고, 그 발전 방안을 제시 하는 데에는 처방적(prescriptive) 방법을 적용하였다.

## 第Ⅱ章 地方政府的 通商政策에 대한 理論的 考察

### 第1節 通商정책 論議의 背景

최근 우리사회에는 地方化·開放化·國際化·世界化 등 地球村 時代를 실감케 하는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그 의미와 정의는 사회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經濟至上主義는 필연적으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국가간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간, 지역간, 도시자치정부간 경쟁력 강화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sup>5)</sup>

UR협상이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열린 세계 각료회의를 통해 종결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후 50년간 세계무역 질서를 지켜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협력 시대를 이끌어 갈 WTO체제가 '95년부터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1995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등 4대 지방선거가 공식적으로 실시 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하였다. 즉, 국제적으로는 개방화를 통한 전면적인 “국제경쟁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통한 “지방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전자를 ‘세계화’, 후자를 ‘지방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공교롭게도 동시에 개막되는 셈이다.

최근 스위스의 세계경제 포럼과 I·M·D는 “'95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48개 국가중 24위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금융과 국제화(개방) 부문에 있어서는 각각 34위로 평가하여 충격을 주었다. 신흥공업국 18개국 중에서는 우리의 경쟁력이 7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91년에 3위였던 것이 '92년에 5위, '93년에

5) William J. Parner, Jr. *The Future of Municipal Finance in an Era of Fiscal Austerity and Economy Globalization*, Municipal Year Book, 1992, PP.3~4.

여기에서는 세계화로 인하여 지방에 미치는 경쟁력 정도는 결국 지방재정에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를 설명하여 주고 있음.

6위로 밀려났고, 다시 '94년 이후에는 7위로 더 밀려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개방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엄려스럽게 하고 있다.<sup>6)</sup>

2차대전 종전 직후에 미국은 전세계 생산의 50%, 무기의 45%를 생산하는 패권 국가로 군림하면서 공산주의라는 체제적 위협에 직면한 대다수 자본주의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유럽공동체(EC)와 일본이 미국의 강력한 경쟁상대로 부상하면서, 미국은 1970년대 초반에 금세기 첫번째 무역적자를 기록한 후 1980년대에는 세계최대의 무역 및 재정적자국으로 전락하게 된다. 미국이 이처럼 세계경제의 패권을 상실하면서 무역상대국들이 국가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보조금 지급, 환율조작, 산업정책, 규제정책 등 강력한 정부권력(개입)이 동원되는데 대한 보호주의 축소 및 장벽철폐를 요구하는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시장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은 냉전체제하의 공산주의의 위협이 컸을 때는 불공정무역을 감수하다가 이들의 위협이 퇴조와 동시에 이제는 자국경제의 쇠퇴를 목인할 수 없다고 하여 급기야 UR협상과 WTO체제 출범을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반공안보가 아닌 경제전쟁이 전면에 등장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족국가체제에서 세계화로의 전환압력 때문에 과도적으로 등장한 것이 EU, NAFTA, APEC 등 범세계적 "지역주의"의 경향이다. 결국 지역주의는 범세계적 차원의 급격하고 거대한 자유화를 요구하는 세계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7)</sup>

이러한 과도기가 지나면 국제경쟁 분업의 질서는 지리적 분업에서 기능적 분업으로 전이되어 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은 직접 투자나 합작투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생산의 세계화를 주도하던 시대는 끝날 것이라는 의미이다. 앞으로 기업의 생산방식은 다양해지고 전략적 제휴와 국제하청을 종합한 역동적 생산망(Dynamic networks)이 새로운 국제생산 방식으로 등장하게 되는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sup>8)</sup>

6) 崔昌浩, 「國際化·地方化의 시대」, 「지방자치의 자율화와 국제화」(제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1994. 12. 3), PP. 1~2.

7) 권단학, 「세계화와 한국인」, 「2000년」(1995. 2월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PP. 21~22.

8) Peter Dicken, *Global Shift :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N.Y : Guilford Press, 1992, PP. 221~224.

이를 요약하면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다. 각종의 규제와 관세장벽이 허물어지고 외국의 사람과 물자, 그리고 기술과 문화가 자유롭게 들어와 우리의 것과 경쟁을 하며, 반대로 우리도 외국에 나가 자유롭게 경쟁을 전개할 수 있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경쟁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와 개인은 무한대로 확대 생존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하는 쪽은 쇠잔의 나락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弱肉強食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차원에서는 물론 地方政府, 그리고 지방의 기업, 학교, 문화단체, 각 전문인, 시민 모두가 세계로 직접 뛰어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계시민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세계인들과 가슴을 열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세계화의 흐름에 변화 역동적인 대응으로 맞서야 하는 것이다.

## 第2節 世界化와 地方政府의 通商政策

### 1. 地方政府 통상정책의 概念

지방자치단체의 3대 구성요소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주민이라고 하지만 법적면에서 뿐만아니라 기능, 조직,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때 지방정부의 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중요하다.<sup>9)</sup> 그리고 지방정부의 통상교류는 “외국의 도시 자치정부와 무역을 통해서 상호 재화를 매매거래 하거나 교환하는 일체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개발의 연대인 60년대 이후 30여년간의 고도성장기 동안 수출이 국가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통상정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중앙집권적 행정체제하에서의 통상문제는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국한된 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며 지방정부는 관심과 능력면에서 거의 배제되다시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9) W. B. Stoffer, *State and Local Politics* N. Y : Haper Collins Publishers, 1991. P. 2.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보면 UR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으로 이제 세계교역 질서는 오직 최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게 되면서 감귤을 비롯한 제주농업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련과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와같은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인식하에 수동적·방어적 영농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공격형 수출농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그 여건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동안 제주농업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제주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입지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 때 제주도 중추산업으로 성장·발전의 추진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따라서 농산물의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제주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기술 및 자본집약형 영농을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의 ‘공격형 수출 영농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제주도의 여건상 가장 유리한 호조건을 갖고 있는 대일농산물 통상교류증진(생산 - 수출체제) 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2. 地方政府的 세계화와 通商交流

세계화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이인재는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여 세계변화에 적응하고 나아가 세계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0)</sup> 노화준·송희준은 세계화를 “世界一流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질서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세계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며, 모든 인류가 잘살아가는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1)</sup>

즉 “세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서 국민의 의식 및 가치관, 제도 및 관행을 미래지향

10) 이인재, “세계화를 위한 시방행성의 방향과 과제”, 『국제교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1995, PP. 7~10.

11) 노화준·송희준,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나남출판사, 1995, PP. 20~22.

적, 발전지향적으로 승화시키는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각 부문의 자기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세계화는 국가나 지역연합의 지리적 경계를 전제로 한 국제적 경쟁논리를 넘어 세계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지구촌 인간공동체의 화합과 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비전이며 나라발전의 정신적 기초이다. 세계화는 그 근본 정신이 개방주의·합리주의·국제협력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화」와 유사하나 「국제화」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전략으로서 주로 경제중심의 개념에 머물렀다면 「세계화」는 본격적인 국가경쟁력을 발휘·실천해 나가자는 전략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한 총체적 차원이라는 의미에서 「국제화」보다 진전된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의 진전은 「세계화」를 용이하게 하고, 「세계화」의 진전은 「국제화」를 가시화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I-1〉 국제화와 세계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세계화(Globaliz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단위 전체</li> <li>• 우리가 주체</li> <li>• 자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경쟁을 강조(주로 경제적 측면)</li> <li>• 국내의 법·제도·관행의 개혁, 대외 협상 능력제고 등 구체적 사안을 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단위 초월</li> <li>• 세계모두가 주체</li> <li>• 전인류, 지구촌 수준에서 협력·통합을 강조</li> <li>• 세계시민정신 등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구</li> </ul>

자료 : 내무부, 「세계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방향과 과제」, 1995.

세계화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나 방침만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기업 등 지역주체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총력추진체제를 구축하고서만이 가능한 것이다.

세계화가 지방정부에 적용되었을 때 지방의 국제교류협력이란 전략으로 나타나는 데 지방의 국제교류협력은 궁극적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잘살게 하

자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에 지방의 통상교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아니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통상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방행정기관 및 기업체가 협조하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 하여야 한다.

지방의 세계화는 한 마디로 표현하면 「창의와 자율에 바탕을 둔 생존전략으로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라는 인식하에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이를 위하여 각 지방 정부는 민관합동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전시관매장 설치운영, 해외물산전 개최, 지역기업체의 전용공단 조성 등과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성자금의 지원확대와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지방세 감면혜택 등을 통하여 교역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sup>13)</sup>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환경진흥을 위하여 일회접수 일괄처리제 (One-Stop Service)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투자유치 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일 등은 지방의 통상교류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다.



### 第 3 節 UR/WTO 협정과 농산물 통상정책과의 관계

#### 1. UR/WTO 협정과 농산물 개방

'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111개국이 서명한 UR(우루과이라운드) 최종 협정문은 짙막한 최종의정서(Final Act)와 더불어 WTO 설립협정과 각료결정 및 선언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4)</sup> 이로써 지난 '86년 9월 20일 우루과이 폰타델에스터에서 시작했던 UR협상이 7년여만에 종결됨과 동시에 전

12) 김석준, 「한국의 세계화 비전」, 공보처, 1995, PP. 3~9 (참조).

13) F. S. Berry, "City Services in Mid-Sized American Cities: Developing a Satisfied Constituency", *Paper on Seminar for improving Cheju city councils ability*, 1995. 11. 17. P. 18.

14)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경제·통상교류 실무교재」, 1995, PP. 6~7.

후 47년동안 국제무역 질서를 주도해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 체제가 '95년 1월1일 부터 정식 출범했다.

UR이 타결됨으로써 우리의 주식인 쌀을 비롯하여 제주지역의 감귤 등 15개 농산물이 개방되게 되었다. 이처럼 WTO는 과거 GATT체제에서 무역자유화의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되어 왔던 농산물 교역과 섬유교역을 체제내로 복귀시켜 이들 분야에 있어 무역자유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산물이 가지는 특수성과 '80년대의 농산물 과잉공급에서 비롯된 과도한 보조금 등 농산물 교역의 왜곡은 관세화 등 시장접근의 개선과 보조금의 감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크게 감소되게 되었다.

UR 농산물 협정에서의 대상품목은 농·축·임산물이며, 수산물은 공산품 관세인하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상품목은 1,305개이며 이중 1,067개품목은 이미 수입자유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238개 품목만이 UR 협상결과에 따라 개방되어야 할 대상품목이다.

## 2. UR 협상이 제주 농산물 통상정책에 미치는 영향

### 1) 오렌지 및 감귤류



UR협상 타결로 농산물 시장의 전면개방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쇠고기, 돼지고기 다음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산 감귤에 주로 영향을 미칠 품목은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이다.

이들 품목은 '97년 7월부터 높은 관세를 물리지만 수입은 자유화 된다.<sup>15)</sup> 오렌지는 '95년 1월부터 '97년까지 정해진 수입쿼터량 한도내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1998~2004년까지 쿼터량 증가율은 연간 12.5%이다. 그러나 '97년 7월부터는 자유화가 되면서 수입쿼터물량 이상의 수입도 가능하다. 단, 자유화 이후에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98년의 경우 '97년 수입하기로 한 쿼터량 25천톤의

15) 高南旭·金瓏范, 「국제화시대의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제주상공회의소 지역경제연구센터, 1994, PP. 52~64.

12.5%인 3,125톤을 추가해 모두 28,125톤을 50% 관세율로 수입하고, 쿼터량 이상의 초과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국영무역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수입권을 갖는 무역)을 통해 수입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합의 되었다.

만다린등 기타 감귤류의 수입개방 내용을 보면 쿼터량에 의해서 '95년 1,258톤을 시작으로 2004년에 2,097톤을 수입해야 한다. 쿼터량에 대한 관세율은 50%이다. 쿼터초과량은 '95년 기준 160%의 관세를 부과하고 2004년까지 144%가 되도록 하되 매년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표 II-2〉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개방 내용

구 분	쿼터량 (톤)			쿼터량관세 (%)	초과관세 (%)	
	'95	'97	2004	'95.1~'97.6	'95	2004
오렌지	15,000	25,000	57,017	50	99	50
감귤류	1,258	1,444	2,097	50	160	140
오렌지주스	50,000	30,000		50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화시대의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1994. 12.

한편 오렌지주스는 '95년에 5만톤, '96년에 5만5천톤, 그리고 '97년 1월~6월까지 3만톤의 쿼터량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97년 7월이후 부터는 60%의 관세율로 수입이 완전 자유화 된다.<sup>16)</sup>

그런데 국내산 감귤주스의 생산원가는 미국 및 브라질산 오렌지주스의 국내 수입가격에 비해 두배이상 비싼 수준이다. 따라서 오렌지주스 시장이 개방되는 시점부터 주스생산용 농축액은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오렌지, 감귤, 오렌지주스가 수입자유화 되면 우리의 감귤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오렌지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 부터 수입될

16) 오렌지 및 감귤류의 수입개방 물량은 '97년 6월까지의 쿼터량에 의한 물량이고, '97년 7월 이후는 완전히 개방되게 된다.

것으로 예상되는데 '97년 6월 수입자유화 이전까지는 수입이 되더라도 수입시기를 국내산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조절할 경우 국내 생산농가에 큰 피해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97년 7월이후 수입이 자유화되면 아무리 관세가 높다해도 바나나 수입개방시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많은 물량이 초기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차츰 관세가 줄어들면 수입량이 늘어나 제주감귤 농업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2) 감귤수입 개방의 예상피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감귤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농가의 피해액은 1995년 746억원에서 2001년 1,85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995~2001년 7개년간 총피해액은 7,949억원으로서 단일 지역에서 입는 피해액으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크다.<sup>17)</sup>

수입개방 초기년도인 '95년에 오렌지 수입물량은 1만 5천톤에 불과하지만, 2001년에는 그 13배 이상이나 되는 20만 1천톤을 수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량으로 제주감귤의 자급률은 '95년의 98%에서 2001년에 74%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II-3〉 감귤의 개방피해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생 산 량 (천톤)	625	628	592	639	574	615	552
생 과 용	471	538	574	601	627	655	683
가 공 용	72	103	76	69	59	63	65
수 출 량 (천톤)	2	6	6	6	6	6	6
수 입 량 (천톤)	15	20	64	38	118	110	201
자 급 률 (%)	98	98	91	95	84	86	74
생산자잉여 감소액 (원)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자료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화 시대의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1994.

17) 고남욱·김경택, 「전계논문」, PP. 23~35.

### 3) 기타 주요 농산물 품목의 개방 예상피해

199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주지역의 11개 주요 농산물의 생산자 잉여 감소분은 1995~2001년 7개 년간 총 1조 409억 4천만원으로 예측되었다. 생산자잉여 감소폭이 정기적으로 증감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감귤의 해걸이 현상 때문이다.

1995~2001년 기간중 제주도 농가가 입을 피해액을 계산해 본 결과 개방이 될 경우 피해가 큰 품목은 감귤, 쇠고기, 고구마, 돼지고기, 감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피해액은 감귤 7,949억원, 쇠고기 464억원, 고구마 460억원, 돼지고기 415억원, 감자 396억원 등이다.

이렇게 볼 때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 제주도가 입는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보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대응 수출을 통한 통상교류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측한(농산물 개방) 피해액을 보면, 5년간의 평균비율을 이용하여 예측한 피해액 1,011억 6천만원과 근접하게 예측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계산한 피해액이 예측방법상의 특성 때문에 과급영향이 과대 또는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통상교류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표 II-4〉 기타 농산물 개방피해

(단위: 억원)

생산자잉여 감소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오렌지 및 감귤류	746	570	1,798	666	1,746	570	1,853	7,949
감자	35.7	42.3	49	56.2	63.2	70.8	78.5	395.7
고구마	79.6	75.2	70.5	65.4	61	56.2	51.6	459.5
쇠고기	38.1	54.6	55	64.4	79.6	78.4	93.6	463.7
돼지고기	25.1	31.8	38.4	83	81.3	79	76	414.6
닭고기	2.3	3.1	4	0	0	0.7	1.4	11.5

생산자잉여 감소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마 늘	21	5.5	20.6	17.4	20.9	14.7	21.9	122
양 과	1.9	1.2	1.7	1.6	1.8	2	2.1	12.3
맥 주 맥	43.7	50.4	58.4	67.1	75.9	85.6	95.9	477
콩	10.9	10.6	10	9.3	8.4	7.2	5.9	62.3
참 깨	7.3	7.1	6.7	6.2	5.6	4.9	4	41.8
계	1,001.6	851.8	2,112.3	1,036.6	2,143.7	969.5	2,283.9	10,409.4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과급영향분석」, 1993.

## 第 4 節 地方政府 通商政策의 방향과 과제

### 1. 地方政府 通商政策의 方向

포괄적인 의미에서 경제·산업의 국제화란 “人力, 財貨, 資本 및 情報, 技術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 또는 이전하는 과정이 촉진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속에서 지역내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신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sup>18)</sup>

먼저 국가단위에서 다루어지는 경제·산업의 국제통상교류를 이동의 대상과 방향에 따라 시책별로 유형화해 보면 <표 II-5>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표 II-5> 경제·산업 국제통상교류의 시책유형

구 분	재 화	자 본	인 력	기술정보
유입, 이입	수입 확대 시장 개발	외자 도입 기업 유치	노동력수입 국제입양	특히 취득 기술도입
유출, 이출	수출 촉진 시장 개척	해외 투자 기업 진출	이민 해외 파견	기술 협력 외국인연수

자료 : 한국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방향과 과제」, 1994.

18) 伊藤善市(外), 「自治體の國際化政策と地域活性化」, 學陽書房, 1994, PP. 79~80.

이상과 같은 시책들이 모두 지방단위에서 추진가능한 것은 아니며 통상교류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도 아니다. 지방의 통상교류시책은 통상의 개념, 교류의 목적, 지방정부 역할이란 세가지 측면에서 그 범위가 조정되어야 한다.<sup>19)</sup>

첫째, 통상(Trade)이란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의 국가간 교역 및 이를 지원하는 제반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지칭하는 무역보다 광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통상교류의 목적은 교류의 확대 (특히, 수출증대)를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로서 교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상교류의 주체는 기업이며 지방정부의 역할은 지방기업의 통상교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이다. 따라서 지나친 개입으로 민간의 자율을 침해하거나 통제 위주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간 긴요한 시책부터 단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지방정부가 통상교류 진흥정책으로 가장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海外市場 開拓活動, 즉 지역상품을 보다 많이 수출하기 위한 통상 및 판촉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통상진흥에는 “만들어진 제품을 파는 일”도 필요하지만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일”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즉 기업의 제품이 가격과 품질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해외시장 개척활동이 곤란할 뿐 아니라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 2. 地方政府의 通商政策 課題

앞으로 지방정부가 경쟁해야 하는 대상은 국내 유사 사기업군이 아니라 경영노하우가 뛰어난 세계 일류기업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통상교류 진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시설 등의 재정비가 뒷받침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sup>20)</sup>

19) 김선기, “지방자치단체의 통상교류 추진방향”, 『국제교류』, 한국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 1994, PP. 5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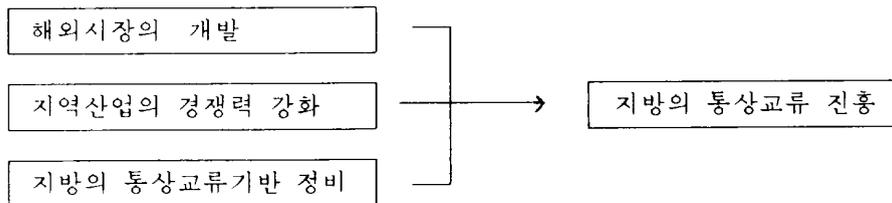
20) 김선기, 『상계논문』, P. 57.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지방의 통상교류를 진흥시키기 위한 과제는 다음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해외시장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해외관측, 국제마케팅
  - 지방기업의 해외진출
- ② 지역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산업정책 및 제도의 국제화와 통상구조 조정
  -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 외국인 투자의 유치
  - 통상장벽의 해결
- ③ 지방의 통상교류기반 정비
  - 통상교류지원 조직 및 기능 강화
  - 통상교류 전문인력의 확충
  - 통상교류 지원조직간 협동체계 구축
  - 통상교류 지원 거점시책의 확보
  - 물류체계 및 기반정비 확충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 II-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1】 지방정부의 통상교류 과제



# 第Ⅲ章 地方政府的 通商政策에 대한 實態와 事例分析

## 第1節 韓國의 地方政府 通商政策

### 1. 지방정부의 통상교류 지원활동

#### 1)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독자적인 해외시장개척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체들을 조직화하여 파견함으로써 참여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시장개척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향후 관련산업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가장 대표적 시장개척사업이다. 현지에 파견된 시장개척단은 시장 조사, 바이어상담, 합작투자 및 기술협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참여기업은 물론 관련기업들이 대상지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활동을 벌이고 있다.<sup>21)</sup>

활동의 초기단계인 현재로서는 지방정부가 KOTRA 지방무역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홍보, 상담장소 임차, 통역요원 확보, 카탈로그 준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1994년말 현재 15개 시·도가 총 44회에 걸쳐 78개국 134개 지역에서 시장개척활동을 벌여 8억 98백만불의 상담과 1억 23백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가 4개 시(성남, 부천, 안산, 광명)의 사업을 포함해 7회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 다음 인천이 6회, 부산, 경북, 경남의 4회순이며 시도별로 평균 2.9회의 파견실적을 보이고 있다.

중점 시장개척지역은 동남아, 중남미, 중동지역으로 총 44회중 27회가 이들 지역에서 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발도상국 위주로 시장개척활동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1) 김신기, 「전세논문」, P. 58.

주요 취급품목은 문구류, 자동차부품, 조명기구, 휴대용 가스버너 등 중저가 품목 및 지방특산물의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동안 상담이 성사된 지역별 통상교류 품목은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지역별 통상교류 품목

지 역	품 목
동 남 아	중고건설장비, 휴대용 가스버너, 넥타이, 피혁제품, 인삼제품
중 동	엔진베어링, 오일휠타, PC부품, 폴리에스테르, 조명기구
중 남 미	자동차부품, 문구류, 1회용 주사기, PC부품, 모조장신구
미 주	인조가발, 직물류, 자수, 조명기구, 티셔츠, 여성내의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1994.

시장개척단 파견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 해외시장 개척활동이지만 아직 초기단계로서 세계화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부족으로 외형적 활동상에 비해서는 내실이 결여되어 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을 들면 다음과 같다.<sup>22)</sup>

첫째,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파견지역의 상거래 관행, 상품선호도, 가격수준 등 기초정보는 KOTRA와 현지지사를 통해 그런대로 수집이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국가별, 지역별 시장특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입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역기관 등 관련단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의 해외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

둘째, 해외시장개척의 필요성에 대한 지방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참여에 소극적이다. 지방중소기업의 국내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 아니라 해외상담경험과 능력의 부족 및 소요경비 과다 등의 이유로 적극적 참여가 미흡하다.

셋째,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개척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 시장조사와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너무 짧은 일정으로 계약체결만을 위한 1회성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2) 김선기, 「전세논문」, P. 59~60.

넷째, 시장개척활동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로 해외상담에 KOTRA 현지 직원이나 교포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으나 어학능력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상담진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Ⅲ-2〉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현황(1994)

시도별	활 동 실 적				
	과 건 지 역	횟수	참가업체	상 담 액	계 약 액
총 계	9개지역	44	537개	8억 9,767만불	1억 2,299만불
서 울	동남아, 중동	2	20	32,139	8,017
부 산	일본, 대양주, 유럽, 중남미, 중동	4	45	35,053	9,052
대 구	동남아	1	14	8,696	5,490
인 천	중남미, 중국, 동구, 중동, 유럽, 동남아	6	100	183,198	21,950
광 주	서아시아, 중국, 중동	2	21	24,970	1,891
대 전	중동, 동남아	2	19	31,196	1,444
경 기	구주, 중동, 대양주, 동구, 중남미, 북미, 북구주	7	72	214,061	37,629
강 원	동남아, 북미, 구주	3	27	53,363	5,653
충 북	미주, 구주	2	23	25,422	1,602
충 남	중남미, 일본, 홍콩	2	22	10,866	2,921
전 북	중남미, 북구	2	27	35,482	7,564
전 남	중남미, 중동	2	24	131,816	5,768
경 북	중동, 유럽, 북미, 구주	4	39	31,155	4,423
경 남	중남미, 일본, 동남아, 구주	4	82	80,251	8,582
제 주	미국, 일본	2	3	-	-

자료 :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현황」, 1994.

## 2) 해외 상설전시장의 설치 운영

해외상설전시장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상품홍보, 거래 및 투자상담, 시장정보의 수집, 거래알선 등 현지 종합상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외진출 희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며 시장 및 관광자원의 홍보 등 활동영역을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의 해외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도 직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sup>23)</sup>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난 5월 시카고에 서울 상품상설전시장(약 70㎡)을 개설하여 지역의 20개 중소기업이 참가하여 수출유망품목을 홍보, 판매하고 있으며 세계주요 도시에 연차적으로 「서울관」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시카고와 애틀랜타에 대구상품 상설전시판매장과 대구섬유제품 상설전시장을 각각 설치하여 상품의 상설전시 및 판매대행, 상품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중국 천진에 인천상품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 무역주재관과 현지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종합상사역할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같이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상설전시장의 설치 외에도 KOTRA의 해외 한국상품 상설전시판매장(KMC)에 일정공간을 마련하여 지방관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 있다. 1994년도의 KMC지방관은 시카고에 6개(광주, 부산, 경기, 전북, 대구, 서울), 파나마에 3개(부산, 광주, 전남), 미국 리레도에 1개(강원) 등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sup>24)</sup>

해외상설전시장은 지방의 영세중소기업의 해외 고정판매망 확보와 전략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수출전진기지의 역할수행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크지만 아직은 홍보 부족으로 현지 판매 기간이 취약할 뿐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업체의 모집도 순조롭지 못한 실정이다.

23) 이정표, 「경제·통상 교류실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1994, P. 191.

24)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1995. 7, P. 30.

〈표 Ⅲ-3〉 해외물산전 참가 및 상설전시장 운영현황

(단위: 만불)

시·도	해 외 물 산 전		상 설 적 관 장 운 영	
	참 가	성 과	개 소	성 과
계	41회	42,740	23	20,823
서울	-	-	1	329
부산	4	15,551	(미1, 파2) (미1, 파나마1)	8,190
대구	11	7,721	1	17
인천	2	1,949	1 (중국 1)	3,188
광주	1	157	(미1, 파2) (미1, 파나마1)	91
대전	1	2,646	-	-
경기	1	121	3 (미2, 네1)	810
강원	2	2,903		423
충북	1	388	1	777
충남	2	942	1	197
전북	3	1,400	3 (미2, 네1)	977
전남	4	2,084	(미1, 파2) (미1, 파나마1)	422
경북	5	5,002	2	1,906
경남	3	1,832	1	3,496
제주	1	44	1	-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1995.

### 3) 해외물산전 개최 및 참가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국제적인 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상품에 대한 홍보와 바이어상담 등을 통해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거래선을 발굴하는 등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과 함께 가장 일반화된 사업중의 하나이다.

여러나라가 함께 참가하는 박람회나 전시회 참가시에는 주최측의 행사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홍보나 바이어 유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1994년 4월 경북이 일본 시마네현에서 경북 상품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오사카 국제박람회(대구, 경북), 북경 아시아·태평양박람회(경북), 브라질 한국상품전시회(부산, 대구, 인천, 경북) 등 크고작은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적지않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참가외에도 지난 5월의 두바이 한국상품종합전의 경우에는 대전시, 전라남도, 강원도가 협력하여 중소기업 공동관을 구성한 사례도 있다.<sup>25)</sup>

현재 지방정부는 지방업체의 해외수출 기반확보 및 지방상품의 대외인식도 제고를 목표로 설명회 개최에서부터 업체모집, 현지활동 등 전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의 한계로 사업의 확대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4) 기타 지원활동

위에 소개한 사업외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방중소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시장동향 및 대응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시장동향설명회(서울시)가 있으며, 지방기업의 생산제품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수출상품 종합카타로그 제작 배포사업, 해외시장정보 수집 및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운영(인천시), 창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능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화 사업(대구시) 등이 추진되고 있다.

25) 이정표, 「전계서」, P. 192.

## 2. 지방의 통상지원조직 운영실태

### 1) 지방정부의 조직

#### (1) 국제통상협력실

##### 가) 조직과 기능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국제협력관계 구축, 통상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실천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내무부는 1994년 5월에 시·도별로 지방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조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설치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순수한 연구자문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현재는 국제협력계 등 국제협력담당부서가 통합되면서 집행업무도 일부 수행하는 지방정부 국제교류의 핵심조직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조직은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두가지 형태로 편성되어 있다. 먼저,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으로 경기, 대구, 경북 등 10개 시·도의 통상협력실 조직형태(연구집행형)이다.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3~5개의 연구반(국제협력반, 통상정책반, 농업정책반, 특화산업반, 과학기술반 등)과 함께 국제협력계 등 2~3개의 「계」 집행조직이 병설되어 있는 형태이다.

두번째 형태가 연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으로 부산, 광주, 전북, 전남 등 4개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통상협력실의 형태(연구전담형)이다. 여기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은 연구반에 대한 총괄지원기능만 수행할 뿐 별도의 집행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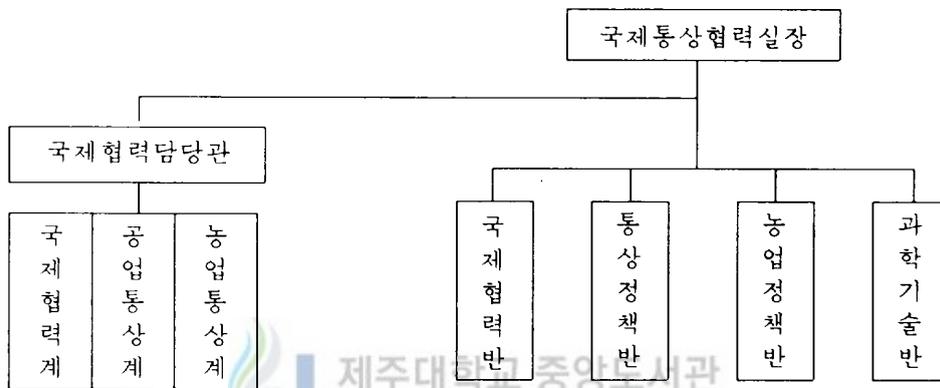
국제통상협력실의 담당업무는 조직성격과 설치목적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되 다음의 업무는 반드시 수행토록 하고 있다.<sup>26)</sup>

- ① 국제화시책 개발연구 및 외국 지방정부의 각종 자료수집
- ② 지방단위 통상정책, 중소기업의 통상업무 지원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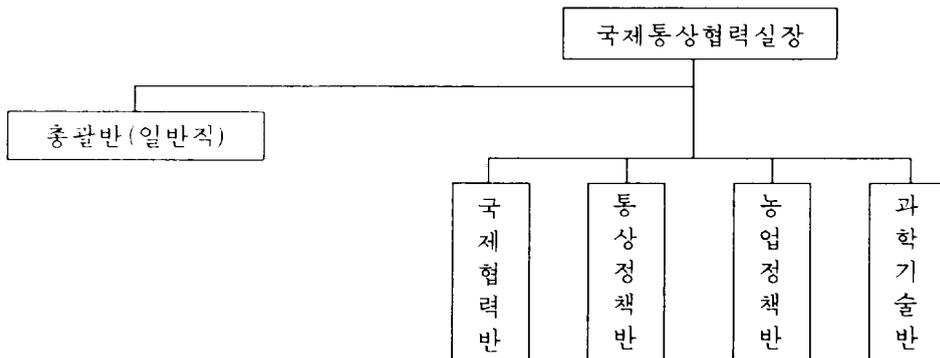
26) 김선기, 「전계논문」, 1P. 64~66.

- ③ 지역 특화산업 육성방안 연구
- ④ UR, GR대책 등 국가경쟁력 강화 관련사항 조사연구
- ⑤ 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 ⑥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지원
- ⑦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업무 지원
- ⑧ 국제교류 협력업무

【그림 Ⅲ-1】 연구집행형 통상협력실 조직형태 (경기도 사례)



【그림 Ⅲ-2】 연구전담형 통상협력실 조직형태



## 나) 인 력

우리나라 전체 국제통상협력실의 인력은 일반직과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1994년말 현재 정원 133명에 현원 133명으로 충원이 완료되었고 전문직은 석·박사의 학력을 소지하고 통상경험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원칙하에 공개채용한 결과 정원 108명에 55명이 충원되었다.

전문직의 경우 현원 55명중 29명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석사학위 소지자도 21명에 이르고 있어 자질면에서 우수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전문직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면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해 봉급이 책정되고 수당은 공무원수당 규정상 지급가능한 모든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 (2) 지역경제과

국제통상협력실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시·도단위 자치단체의 통상교류지원 부서로 지역경제국내 지역경제과(일부 시도에서는 상공과, 통상지원과)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내무부의 운영지침(1994. 8. 9)에 의거 국제통상협력실은 일반교류 외의 집행업무를 거의 담당하고 있지 않고 연구자문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통상교류를 지원하는 집행부서로서 지역경제과의 역할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경제과에서 통상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수출진흥(지원)계인데 일부 시도의 경우는 보다 세분화하여 농산물수출계, 기술진흥계(경북) 등을 두고 있는 곳도 있다. 수출진흥계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사업(수출촉진단의 파견, 국제박람회와 전시회의 참가, 해외상설직관장 운영 등), 수출기반조성사업(협의회 구성, 디자인개발 지원, 수출상품 카타로그 제작 배포, 지방무역회사 설립 운영, 경제정보센터 설치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5인을 넘지 못하고 있어 관할구역내 기업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실정이다.<sup>27)</sup>

27) 정태수,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현황과 과제", 「국제교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1994. 11, PP. 18~20.

## 2) 기타 지원조직

일부 시·도(경남, 경북, 제주)에서는 지방무역회사를 설치하여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정보 관리, 수출입정보 제공 및 무역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북통상(주)의 경우 자본금 30억의 민관합작 투자 주식회사로 사장, 본부장, 기획관리팀, 개발팀, 무역1팀, 무역2팀으로 기구구성이 되어 있고, 15인 내외의 인력으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무역업 및 관련 부대사업을 행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의 통상교류를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94년 7월에 설치된 국제교류재단, 전국적으로 55개에 이르는 지방상공회의소, KOTRA 국내지부와 해외지부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국제교류재단은 주로 자치단체의 일반교류업무를 지원 조정하고 지방상공회의소는 일부 대도시지역을 제외하고는 국제통상교류 지원목적의 예산, 인력, 실적이 미미한 형편이다. 반면에 KOTRA의 경우 지방정부의 수출촉진단 파견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의 통상교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해외무역관, 해외지부)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sup>28)</sup>

## 3. 전국의 농림수산물 통상 교류 실태

### 1) 총 괄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은 <표 III-4>를 보면 공업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에 힘입어 1970년 8억불에서 1993년 824억불, 1994년 960억불로 24년간 120배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성장전략에서 소외되어온 농림수산업은 1970년 2억불에서 1994년 31억불로 약 15.5배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총수출에서 농림수산업의 수출비중은 1970년 32%에서 1980년 10%, 1993년 3.8%, 1994년 3.3%로 급격히 감소하여 농림수산업이 수출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극히 낮아지고 있다.<sup>29)</sup>

28) 정태수, 「건계논문」, P. 21

29) 제주도,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1994. 4, P.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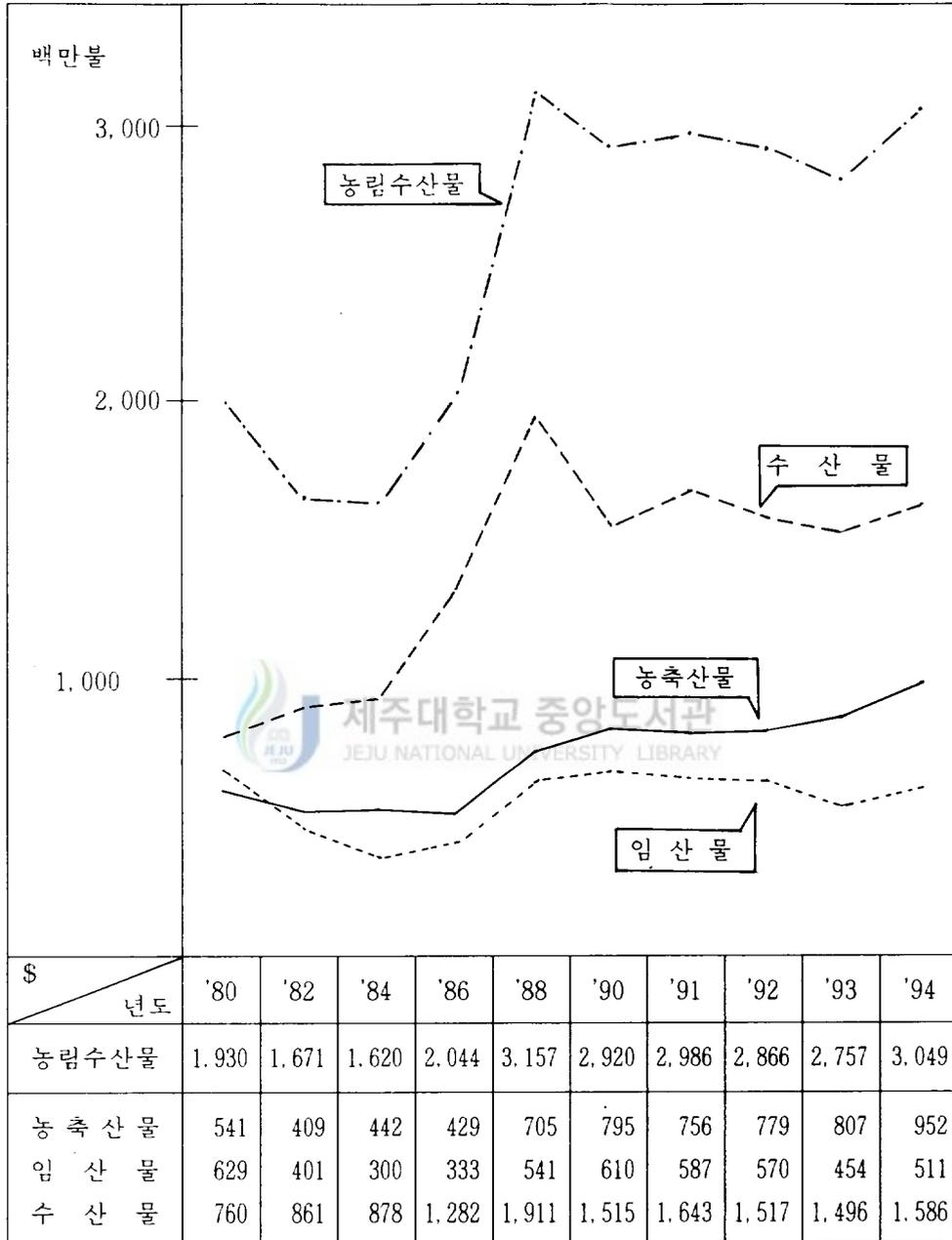
〈표 Ⅲ-4〉 농림수산물 통상교류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92 (A)	'93 (B)	'94 (C)	증 감 율 (%)		
				A / B	B / C	
수출	국 가 전 체	76,632	82,236	96,013	7.3	16.9
	농 립 수 산 물	2,865.9	2,759.4	3,048.7	△3.7	10.5
	농 산 물	685.1	694.7	835.7	1.4	20.3
	축 산 물	93.8	114.7	116.1	18.2	1.2
	임 산 물	569.5	453.5	511.1	△25.6	12.7
수 산 물	1,517.5	1,496.5	1,585.8	△1.4	6.0	
수입	국 가 전 체	81,775	83,800	102,348	2.5	22.1
	농 립 수 산 물	6,574.2	7,811.6	8,715.7	18.8	11.6
	농 산 물	3,368.2	3,870.3	4,493.3	△13.0	16.1
	축 산 물	815.3	701.1	932.3	△6.3	33.0
	임 산 물	1,883.5	2,697.7	2,562.8	30.2	△5.0
수 산 물	507.2	542.5	727.2	6.5	34.0	
수	국 가 전 체	△5,143	△1,564	△6,335	△69.5	305.1
지	농 립 수 산 물	△3,708.4	△5,052.2	△5,667	36.2	12.2

자료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농림수산물 수출입 현황」, 1995.

〈표 Ⅲ-5〉 연도별 수출동향



자료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1994.

국제화·세계화로 농림수산물 수입은 급증하고 있으나, 수출은 정체되고 있어서 농림수산물 교역수지는 1994년 현재 약 57억불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조정 및 고품, 기술, 수출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데 많은 시책들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방단위(郡別) 수출 유망품목 개발사업을 역점 사업화하여 '92년부터 지역특화 품목의 통상교류 상품화 사업으로 확대 전개해 나가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농업진흥청 및 지방정부 등과 산·학·관 연계 협력체계에 추진하고 있는 통상교류 농업의 선도기능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다.<sup>30)</sup>

〈표 Ⅲ-6〉 지역(군별) 특화상품 통상교류 추진현황

구 분	'92	'93	'94	'95
품 목 수	6	17	22	36
물 량(톤)	73	1,778	1,851	3,000
금 액(천)	108	3,121	6,124	10,00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군별 특화품목의 통상교류 상품화 개발계획('95)」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상교류 전략 작목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해서 초기 결손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산·학·관 협력체제로 체계적인 연구개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우수 전통 가공식품등 지역적 문화의 세계화에 발맞추어 한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린 농수산물로서 해외소비자 입맛들이기 경쟁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대일 농산물 교역 실태

일본은 연간 600억불이상의 농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농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이며,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액의 70%를 점하는 나라이다.<sup>31)</sup>

30) 농수산물 유통공사, 「군별 특화품목의 통상교류 상품화 개발계획」, 1995, PP. 35~37.

31) 제주도, 「제주도 특산물 일본시장동향 : 일본 농수산물 시장조사보고」, 1995, PP. 10~12.

일본은 우리나라와 食文化가 유사하고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우리 농산물의 대일 수출여건이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유리하다.

현재 일본의 농산물 자급률은 매년 저하되어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상황인데 과실류의 경우 60%가 국내산이고 나머지 40%가 수입과실일 정도이다. 이것은 일본 농가의 후계자 부족과 일본 국내에서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운임 등)가 상승한 때문이며, 특히 일본정부가 농업인구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3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비율은 1.6%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본시장을 점유하면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시장은 까다로운 시장의 하나이다. 품질, 규격, 포장, 검역, 위생, 가격 등 어느 것 하나라도 까다롭지 않은 것이 없다. 게다가 우리와 같이 근거리에도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인맥이 양국간에 얽혀 있어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뒤통스 장사가 좀 될만 하면 경쟁자가 몰려들어 양쪽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든가 상호 통상교류를 어렵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

대충대충 일을 하려는 한국인의 기질로 보면 일본은 너무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대로만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대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일본 농수산물 시장의 실체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 시장으로의 개척 가능성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33)</sup>

어쨌든 일본시장이 우리의 농수산물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주수출시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주종 수출품목이 김치, 채소류 수출증가와 참치, 피조개, 봉장어 등의 어황호조에 힘입어 '94년말에는 전년 동기대비 7.4%의 증가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대일본 농림수산물 교역현황을 보면 다음 <표 Ⅲ-7>과 같다.

32) 최정섭외, 「일본·미국농업 투융자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소, 1993, PP. 13~16.

33) 이종용, 「일본의 농산물 시장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소, 1992, PP. 58~61.

〈표 Ⅲ-7〉 대일본 농림수산물 교역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연 도 별			12 월 말		
		'92	'93	증감율	'93	'94	증감율
수	국 가 전 체	11,599	11,564	△0.3	11,564	13,523	16.9
	농 립 수 산 물	1,913.2	1,871.8	△2.2	1,871.8	2,010.7	7.4
	농 산 물	199.2	223.6	10.9	223.6	264.1	18.1
	축 산 물	87.4	106.4	21.7	106.4	107.1	0.6
	수 산 물	1,148.6	1,168.2	1.7	1,168.2	1,235.5	5.8
출	국 가 전 체	19,458	20,016	2.9	20,016	25,390	26.8
	농 립 수 산 물	160.0	190.9	19.3	190.9	256.5	34.4
	농 산 물	92.4	114.6	19.4	114.6	168.7	47.2
	축 산 물	21.4	12.6	△40.6	12.6	12.1	△4.4
	수 산 물	31.7	40.4	27.3	40.4	42.3	4.8
입	국 가 전 체	19,458	20,016	2.9	20,016	25,390	26.8
	농 립 수 산 물	160.0	190.9	19.3	190.9	256.5	34.4
	농 산 물	92.4	114.6	19.4	114.6	168.7	47.2
	축 산 물	21.4	12.6	△40.6	12.6	12.1	△4.4
	수 산 물	31.7	40.4	27.3	40.4	42.3	4.8
수 지	국 가 전 체	△7,859	△8,452	7.5	△8,452	△11,867	40.4
	농 립 수 산 물	1,753.2	1,680.9	△4.1	1,680.9	1,754.2	4.4

자료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1995.

#### 4. 韓國의 地方政府 通商政策 事例

최근에 전국적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 도시 자치정부들과의 경제 통상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1995년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도자치정부의 통상교류 정책사례들을 요약·설명해 보았다.<sup>34)</sup>

##### 1) 서울특별시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서울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장기 산업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서울경제의 국제화를 위해 자매도시와의 경제교류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1) 자매도시와 비즈니스 파트너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파리, 북경, 동경 등 13개 자매도시와 연차적으로 경제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통상사절단을 상호 교환하고 상대방 도시에서 개최되는 기술세미나, 전시회, 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하는 등 경제협력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 (2) 무역전시관 설치

관내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및 수출촉진을 위해 국내 및 해외에 무역전시관을 설치한다. 국내 무역관은 제품전시와 기업홍보, 무역상담, 국제회의 및 문화행사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해외무역관은 제품전시와 기업홍보, 무역상담·알선, 현지 무역정보 수집, 관광안내 및 관광객 유치 등 종합적 기능을 갖춘 해외사무소로 운영하고 있다.

##### (3) 경제정보화 사업

경제·무역·금융 등의 최신정보를 수집, 관내 기업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34) 이시형, "경제·통상교류 사업계획 소개", 「지방교류소식(통권 제6호)」, 1995. 1. PP. 5~7.

경제·통상 유관기관 전산망과 연결하여 정보를 수집. 민원전화·FAX·PC를 활용하여 기업에 직접 제공하거나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행정자료에 수록하고 수출 및 투자유망 지역에 대한 「해외시장정보」 책자를 발간·배포하며, 「해외시장동향 설명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나가고 있다.

## 2) 대구광역시

국제적 산업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지역 수출상품의 수출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고,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 및 기술이전을 적극 유도하며, 해외시장개척과 시장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구지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통상 업무를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 (1) 대구무역센터종합전시장 건립

동남권의 무역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지역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마케팅 지원을 위해 부지 11,900평, 연건평 49,000평 규모의 무역센터 및 종합전시장을 '97년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중이다.

### (2) 국제통상업무의 연구개발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투자유치단」을 파견(1회) 하였으며 미국(시카고, 아틀란타), 파나마(파나마시티) 등에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였다. 그 밖에 「국제민원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해외교포명예통상관」 위촉·운영사업, 지역내 「외국인 유학생 모니터 요원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3) 지역수출산업의 국제기반 강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2회), 「해외박람회」 참가(6회), 「미주지역수출촉진단」 파견, 「대구상품해외상설판매매장」(미국 시카고, 파나마시티) 설치, 「수출기업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신시장 개척시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상품포장 및 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4) 통상정보의 보급 및 홍보 지원

무역 및 기술정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알미늄 주방기구에 대한 해외시장동향, 마케팅 전략, 품질관리 실태 등을 수록한 「해외시장심층분석지」 외에 국제교류 관련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는 각종 해외정보를 모은 「국제업무편람」과 「국제정보지」를 발간하고, 지역 수출상품의 홍보를 위해 「수출상품종합카드로그」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매년 주한외국 상무관 및 상사 중역 등을 초청하여 「대구지역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5) 중소기업의 무역실무 능력제고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무역실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선진국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실무자 연수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상 실무 이론을 강의하는 통상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광주광역시

안정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생산 제품에 대한 해외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해외교포 명예무역주재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해외시장개척 「수출진흥기금」 조성

지역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0년까지 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 수출업체에 융자해 주거나 해외시장개척 사업시 보조해 줌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생적 국제통상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2) 기업의 수출능력 배양

중소기업 수출관련 실무자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일반시민에게 수출입 지식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수출학교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수출기업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3) 지역제품에 대한 홍보강화

지역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소비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95년 9월 개관된 광주무역회관내 전시실에서 전기·전자, 기계·금속, 자동차용품 등 6개분야 5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광주상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주한 외국 상무관 및 상사 지점장 등을 초청하여 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4) 해외교포 명예무역주재관 운영

상품교역 전망이 밝은 지역에 통상경험이 있는 유력인사를 명예무역주재관으로 위촉하여 해외시장정보 수집 및 지역상품 거래알선 창구로 활용, 현재 일본 오사카, 미국 LA 및 샌아토니오, 홍콩에 운영중이며, 아랍에미레이트 등 시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하여 통상다변화 시책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 (5) 기타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중국(廣州), 아랍에미레이트(두바이),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및 박람회」에 참가하고 미국,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4회) 하여 「지역수출상품카달로그」를 제작·배포하는 한편, 「일본지역구매촉진단초청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4) 전라북도

일본 가고시마현 등 자매결연도시와 경제교류를 강화, 해외상설전시판매장 2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역제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하고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등을 통해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 관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해외상설전시판매장 확대 설치

미국 LA·뉴욕·시카고, 네델란드 로테르담, 일본 가고시마 등 5개소 외에 농산물 전시판매를 목적으로 일본 오사카의 한국물산 전시판매장과 미국 뉴욕의 한국농산물 유통센터내에 전북관을 추가로 설치 하였다.

(2)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증진

자매도시 결연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양도시간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매도시와 협조하여 「무역상담회」(일본 가고시마, 중국 강소성)를 개최하고 「투자조사단」을 파견하였다.

(3) 해외교포 무역주재관 위촉운영

지역상품의 거래알선 및 시장정보 수집을 위해 미국 시카고와 뉴욕지역에서 활용하는 이 고장 출신 교포무역인을 무역주재관으로 위촉, 해외시장정보 수집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4) 기타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

지역공산품의 홍보 및 수출확대를 위해 국제무역박람회(2회)에 참가하고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5회)참가, 농수산물 해외물산전(미국, 일본)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단을 남부유럽과 대양주에 2회에 걸쳐 파견하였다.

## 5) 경상북도

도내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현황을 분석, 한일 무역역조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과 경영기술향상,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투자 촉진등 지역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 해외통상주재관

일본, 미국의 주요 도시에 도 공무원을 상주시켜 농산물 등의 수출세일즈맨으로 활용하고 국제적 경험과 안목을 갖춘 중견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와 미국 오하이오에 통상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다.

(2) 수출유망상품 포장개척비 지원

중소기업의 고유 디자인 개발로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산품의 디자인·포장 개발비를 지원하고,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포장디자인 개발비 및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3) 지역제품 홍보 강화

지역제품의 해외홍보를 위해 「수출상품카달로그」를 제작·배포하고 이미 발간한 바 있는 「경북농수특산물」을 추가 인쇄·배포하였으며 정기적인 해외무역 홍보지(대한무역진흥공사 발간 「KOTRA TRADE」)에 지역제품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4) 해외상설전시판매장 운영

이미 설치 운영중인 미국 LA외에 '95년도에 뉴욕과 일본 오사카지역에 「경북상품 해외상설전시판매장」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5) 기타 해외시장개척 사업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더욱 강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은 연간 6회,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는 연간 7회, 구매단 초청 및 수출연수단은 4회 파견할 계획을 세워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다.

## 第2節 濟州道の 通商政策

### 1. 제주도의 통상교류 지원활동

#### 1) 해외시장개척

제주도출신 해외교민의 집단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교포사회 및 현지인에 대한 청정·무공해 상품 홍보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확대하여 통상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면서 이를 발판으로 점차 수출통로의 다변화 정책을 펴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일본지역은 교민 687천명중에서 제주도 출신이 17.2%에 해당하는 117천명이 살고 있는 데, 그중 대관지역에 73천명, 그외 동경지역 등에 44천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발판으로 일본의 관서도민회 및 동경과 대관지역에 도내 수출유망 중소기업 10개업체로 구성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KOTRA 현지무역관을 통한 현지 바이어 상담활동과 시장개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통상교류 활동을 하고 있다.<sup>35)</sup>

「대관 판매전시장」내에 주식회사 한국물산과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협조하에 제주도 특산품 코너를 마련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큐슈 3현(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에 대한 「우수상품 전시·상담회」에 참가, 제주도 상품 순회 전시 상담활동을 전개하여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 결과 오사카 지역 중심으로 가공식품, 공예품등 99개 품목을 전시하여 1억 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였고, 도쿄 지역에서도 10개업체 54개품목이 참가하여 1억1천만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주상품의 이미지 홍보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미국(뉴욕)과 캐나다(밴쿠버)에서도 뉴욕 제주도민회와 「퍼시픽림 인터내셔널」사의 협조를 얻어 '94년 12월 2일 ~ 12월 4일 사이에 제주도 상품전시 및 시음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KOTRA 뉴욕 무역관과 밴쿠버

35) 제주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의 노력」, 1995, PP. 5~10.

무역관의 협조를 얻어 현지 바이어 상담활동을 벌이면서 제주상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였으며, 미국 L.A의 「한국농어촌특산물 유통센터」내에 종합무역상사인 주식회사 「고려무역」과 전시관매장(5평)을 임차계약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는 청정·무공해 지역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제주상품 해외홍보용 안내책자를 일본어 및 영문판으로 고급 도안 제작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 추진상의 애로사항은 해외 상설 전시장공간 확보상의 어려움과 직항로(선박) 미개설로 부산항 경유 수출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물류비용의 추가부담 및 상품의 신선도 유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제주지역은 디자인 및 포장기술이 낙후되어 수출품의 상품성 제고와 시장개척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 따르고 있다는 점 등이다.

〈표 Ⅲ-8〉 통상교류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 사업 현황('95)

(단위: 천원)

주요사업	시기	대상국(지역)	참가업체(농가)	예산
〈농수산물 수출촉진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4회		40개사	194,304
- 1차	5월	일본	10개사	
- 2차	6월	미주	10개사	
- 3차	9월	일본	10개사	
- 4차	10월	동남아	10개사	
박람회 참가	3회	3개국	55개사	235,987
- 뉴욕국제식품박람회	7월	미국	20개사	69,611
- 모스크바세계식품 박람회	11월	모스크바	20개사	94,200
- 알스메어 화훼박람회	11월	네델란드	15개사	72,176
거래알선	년 중	80개해외 무역관	550개사	9,392

주요사업	시기	대상국 (지역)	참가업체 (농가)	예산
〈화훼류전략마케팅지원사업〉 화훼류전략마케팅	6회		220명 (개사)	172,320
- 화훼전문가초청기술 지도	2회 (5.9월)	일본	100명	
- 화훼연수단 파견	2회 (6.10월)	일본 유럽		
- 일본화훼수입상 초청시찰단	1회 (6월)	일본		
- 화훼수출산업화 심포지움	1회 (7월)	유럽		
〈농수산물수출기반조성사업〉 대일농산물홍보단 파견	1회 (5월)	일본 (5개지역)	30명 (개사)	70,520
일본지역양판점구매 부장 초청	1회	일본	30명 (개사)	120,942

자료: 제주도,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우리의 노력」,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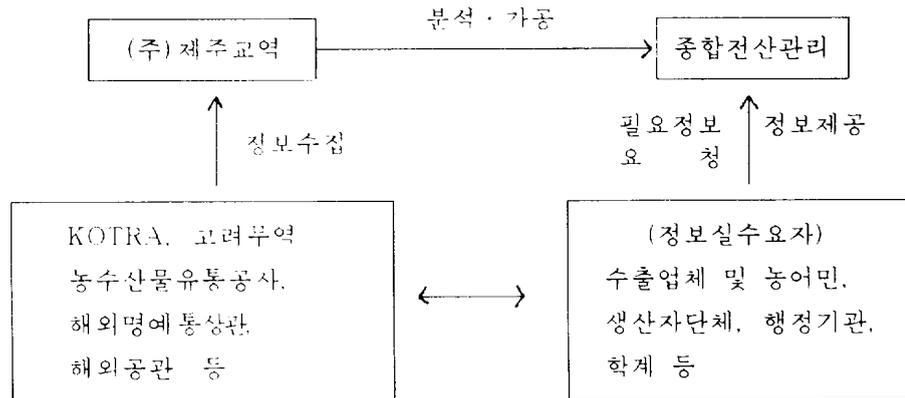
## 2) 통상교류기반 확대

제주지역경제의 세계화와 공익사업 수행을 통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95년 3월에 「제주도개발공사」가 설립되었고 지방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를 통한 제주의 농업을 경쟁적 공격형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94년 12월 8일 주식회사 「濟州交易」이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도·시·군 등 5개 행정기관이 10억원(33%), 농·수·축·임협 등 34개 생산자 단체가 15.3억원(51%), 농어민 등 25명의 일반 모집주가 4.7억원(16%) 등 총 130억원(수권자본금 100억원, 설립자본금 30억원)을 투자하여 명실공히 도민의 기업으로 출범하였다. 앞으로 제주교역은 지역 농수산물의

출·입상담과 애로사항 타개지원, 포장재 및 디자인 연구개발, 오렌지 수입대행과 감귤 수출입 업무수행 등의 주요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36)</sup>  
 과 감귤 수출입 업무수행 등의 주요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36)</sup>

【그림 Ⅲ-3】 제주교역을 통한 해외시장 정보망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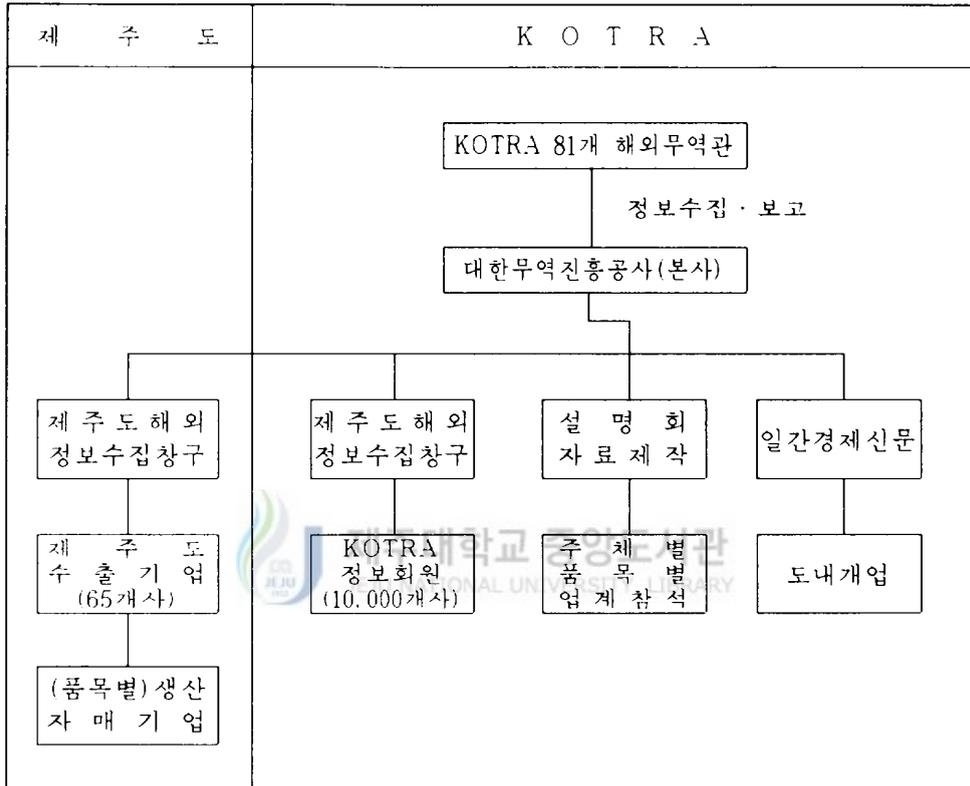
수출감귤의 품질보증 및 상품성 향상을 통한 대미수출을 집중육성 하기 위해 '95년도에 남제주군 남원읍 의귀리 55ha(56농가)의 수출단지조성을 시발로 4개시군 각 1개소씩 추가 조성중에 있으며, 주일한국 대사관과의 Hot-line을 개설하여 수출입 정보의 신속한 교류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해외교민에 대한 관심사업 전개와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교민실」을 설치하여 교민단체 회장단 등 관심인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고 한라문화제 등 도내 행사 참가초청, 교민성공사례 전파, 제주도정의 주요동향을 교민단에 전파, 교민들의 지역내 민자유치 사업추진 등 해외교민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업무대행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KOTRA, 무역협회 등의 지방사무소가 타 시도에는 전부 설치되어 있으나, 제주도 지역에만 설치가 되어 있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KOTRA와의 제주도 농수산 수출기업의 정보 전파체계를 확립하

36) 제주도, 「도정 백서」, 1995, PP. 267~270.

여 농수산물 수출상담위주의 시장개척단 파견문제, 목표시장 유력수입상 초청 사업전개 및 적극적 수주활동지원, 제주도 농수산물 증·장기 홍보단파견 등 수출 통상 교류 기관으로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결 체계를 맺어놓고 있다.<sup>37)</sup>

【그림 Ⅲ-4】 제주도 농수산물 통상교류의 정보전파 체계



자료 : 대한무역공사, 「제주도농수축산물 수출전략」, 1993.

특히 도내수출업체 및 관련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공략방법과 시장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KOTRA 제주이동무역관 설치를 적극 검토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동무역관이 본격 가동된다면 KOTRA 직원들이 매분기 3~4일씩

37) 제주도, 「농수축산물 수출 종합계획」, 1995. PP. 30~32.

제주도 현지에 파견되어 통상교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서 수출물류비용 절감 대책에 대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강구중이지만, 앞으로 이 분야는 제주대학교 등 전문용역기관에 별도 용역을 의뢰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개선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선 수출물량의 한계로 인한 제주-일본간, 또는 제주-미국 등 해외통상국간 수출이 대부분 부산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의 상승과 운송체제 낙후에 따른 신선도 유지곤란 등 수출부진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선 유통분야 세계기업인 돌코리아(Dole Korea) 등과 원가절감 운송계약 등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다.<sup>38)</sup>

### 3) 통상지원체제 구축

#### (1) 「수출촉진지원협의회」 구성운영

통상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관료 개척 및 무역정보 수집의 지원, 수출 규격 상품 생산체제 구축과 관계기관단체간 연계 협조와 지원, 수출애로 타개 및 상품 부가가치 제고방안 협의, 수출업체에 편의제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출관련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수출촉진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제주도, 농·수·축협 등 생산자단체, 제주교역, 세관, 항만청, 동식물검역소, 농수산물 유통공사, 외환은행 제주지점 등 기관·단체대표 20명과 농·수·축·임산물 수출업체 대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해외교민명예통상관」 위촉

미국, 일본 등의 해외교민들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농수산물 시장조사 및 정보 제공, 해외바이어 발굴 및 알선, 지역농·특산물 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해외교민 명예통상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38) 제주도, 「농수산물 수출제회과 해외시장 동향」, 1994, PP. 10~15.

일본, 미국의 9개 도민회원 100여명을 선정하여 특히 해외도민중 농수축산물을 취급하는 교민과 사업가를 중심으로 도지사 위촉장과 함께 명예통상관증을 수여하여 제주도출신 교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향토사랑의 정신을 이국에 심어 나가는 사절단으로서의 사명의식을 전파하는 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 (3) 「수출협의체」 구성운영

(株)濟州交易, 기존무역업체, 수출농어민 등 20명 내외로 「수출협의체」를 구성, 도내 수출업체와 공동으로 품목별 해외 세일즈단을 파견하여 시장개척에 임하는 등 통상교류의 중심 조직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해외바이어를 발굴, 도내 수출업체에 중개 및 알선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일본시장 집중개척을 위한 품목별 시장 심층조사 및 수출전략 수립 추진, 수출업체의 소량의 상품수출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 희망업체의 상품을 취합 수출 수송체계구축, 통관·검역 등 수출절차와 방법을 잘 알지못하는 생산농어민에 대한 수출대행 및 지원, 생산농어민과 계약재배를 통한 수출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4)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세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민·관·산학협의체로서 국제화 대응전략의 전향적 모색을 위하여 제주도 조례 1905호('94. 5. 26)로 「제주도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국제교류 협력 등의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농·축·수산, 상공, 관광, 언론, 문화, 학계 등 산업별 국제관계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어 임기 2년제로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중에 개최 운영하고 있다. 4개 시군에서도 이와 병행하여 자체 조례로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 하고있다.

### (5) 「세계화 제주포럼」 운영

21세기 세계화 전략의 지방적 구현을 도모하고, 제주의 세계화를 도민자율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계화 제주포럼」을 구성, 제주의 미래화·일류화

를 지향하는 지역사회 공동협의체로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지방의회,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경제단체, 제주도 및 시민단체 등 도내 각 사회 직능기관 단체대표 60명으로 구성되어 산하에 교육·제도, 지역경제, 관광·문화, 환경·보건 등 직능분야별 4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의 임무는 전체 포럼에서 각 분야별 토론회 주관 개최 및 소위원회별 업무분담 조정을 통해 도출된 각종 정책 대안이나 실천 과제를 소관별 해당기관·단체에 권고, 자문하도록 되어있다.

이 협의회는 소위원회별로 소관분야에 대한 추진과제를 발굴, 연구 및 실천방안을 강구하여 도민 공감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주민교육·홍보대안까지 제시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전체 포럼은 분기별 1회, 소위원회는 월1회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지원 조직으로 「세계화 추진기획단」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계화 제주포럼」 운영규정(10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 (6) 「제주국제협의회」 활동

「제주국제협의회」는 21세기 아시아·환태평양 시대에 제주를 가장 살기 좋은 〈평화·번영·복지의 섬〉으로 만드는 길을 찾기 위해 뜻있는 제주출신 도내외 인사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제주의 국제화·세계화속의 지방화를 표방하고 특히 제주가 자리잡은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상, 제주의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가 지닌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제주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연구 토의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1991년 6월 20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다.

이 협의회에는 본도출신중 전직 장·차관, 전현직 대학교수, 변호사 심지어 인기연예인 까지도 참여하여 구성된 순수 민간중심의 단체로서, 매년 6~7월중에 제주의 발전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 개최와 제주국제협의회 연구총서간행(제4집), 제주환경선언문 발표, 제주포럼·제주인의 밤 등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제주의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펴고 있다.

## 2. 제주도의 통상교류 지원 조직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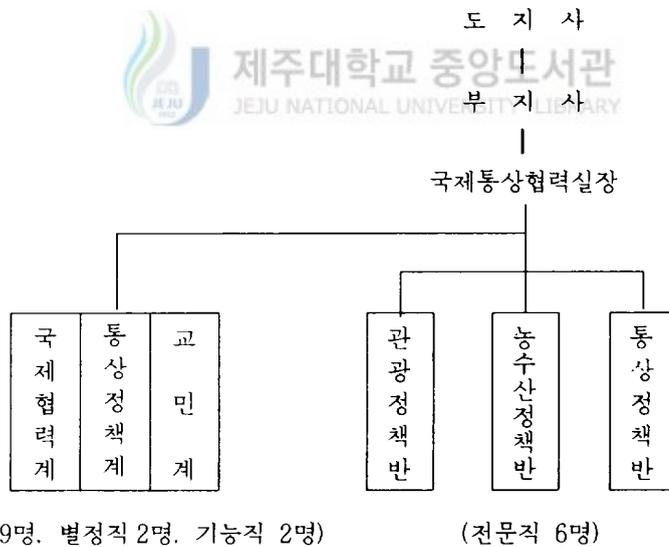
### 1) 국제통상협력실

#### (1) 조 직

제주도의 통상교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지난 '94. 6. 29 행정기구 개편시에 개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이다. <그림 Ⅲ-5>에서 처럼 국제협력계와 통상정책계, 교민계등 3개계를 설치, 과거 총무과 등에서 담당하던 통상교류업무를 확대 재편하여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인 경우는 제주시가 기획실 기획계, 서귀포시 기획감사실 의회계, 북제주군은 기획실 법무계, 남제주군은 기획실 기획계 등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임시방편적으로 분장하여 담당하고 있다. 이는 경북 경주시의 경우처럼 국제과를 두고 있는 예와는 너무 판이하여 시군 인력의 통상교류 업무 전문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sup>39)</sup>

【그림 Ⅲ-5】 제주도의 국제통상협력 조직



39) 拙稿,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하는 사회와 제주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회 학술발표대회, 1994. 11), pp. 56~59.

## 2) 국제협력·통상교류 실태

제주도의 국제교류는 주로 자매결연, 해외연수 및 비교시찰, 문화예술교류, 체육 학술교류 및 국제회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통상협력이라든가 관광 농수산 분야의 상호 비교연구 등 인적물적 교류에 중점을 두고 통상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표 Ⅲ-9〉 제주도내 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

도·시군	외 국 도 시	체결일시	체결장소	결연주선
제 주 도	미국 하와이주	86. 11. 25	제 주 도 청	지방정부
"	인도네시아 발리주	89. 6. 16	발리주청사	"
"	러시아연방 사할린주	92. 1. 17	제 주 도 청	"
"	중국 해남성	95. 10. 2	"	"
제 주 시	일본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87. 11. 12	제 주 시 청	재외공관
서귀포시	일본 사가현 가라쓰시	94. 9. 15	가라쓰시청	지방정부
남제주군	일본 와카야마현 나가군	87. 2. 20	남제주군청	민간단체

자료 :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현황(95)」

지금까지 제주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교류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로 상호방문(62%)이나 공무원연수(25%)가 중점을 이루고 있으며, 체육교류(5%), 학술교류나 국제회의(5%) 등의 교류사업이 극소수 이루어지고 있다. 자치단체간의 통상교역이나 공무원 장기연수(1년이상) 교류사례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제주도과 하와이, 오키나와, 중국 하이난, 포르투갈 마조리스, 필리핀 일로코스과 참여하는 환태평양 지역 주요 관광지와 공동협의체를 결성하려는 구상을 해 나가고 있다.

한일해협연안 도시들인 제주도,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과 일본의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등 7개 시·도·현지사의 교류회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현재 가동중인 (주)제주교역이 활성화 될 경우 농·축·수산물 등 통상직교역 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Ⅲ-10〉 지방정부의 상호교류 실적('94)

(단위 : 백만불, %)

구 분	계	제 주 도 하와이주	제 주 도 발 리 주	제 주 도 사할린주	제 주 시 와까야마시	서귀포시 카라쯔시	남제주군 나 가 군
회 수	144	36	20	1	72	2	13
인 원	1.671	153	238	20	1.109	30	121

자료 :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현황항 ('95)」

또한, 상당수의 도내 민간단체가 외국의 유사기능단체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연결고리가 없어 지역 통상교류 사업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은 앞으로 제도적 개선과제로 남는 분야의 하나이다.

〈표 Ⅲ-11〉 제주도내 사회단체의 자매결연 현황(도내16단체/외국26단체)

사 회 단 체 명	외 국 사 회 단 체 명	체결일시
제주 라이온즈클럽	일본 시즈오카클럽	'70. 4. 11
	일본 다카라스카 왕인클럽	'84. 3. 19
	대만 대북시 중구 사자회클럽	'90. 6. 23
탐라 라이온즈클럽	일본 소송도 라이온즈클럽	'87. 6. 11
제주 중앙라이온즈클럽	일본 하루나 라이온즈클럽	'87. 10. 18
제주지구 청년회의소	일본 나가 청년회의소	'79. 5. 17
신제주 청년회의소	대만 동향 국제청년상회	'87. 8. 29
제주 로타리클럽	일본 샌다이 로타리클럽	'88. 5. 14
	대만 화련 항구로타리클럽	'88. 6. 6
제주도 관광협회	일본 북해도 지도새관광연맹	'81. 8. 31
	일본 시모노세끼시 관광협회	'84. 4. 23
	일본 나가사끼시 관광협회	'87. 5. 14
	대만 화련관광협회	'79. 12. 10
	일본 와까야마현 아리따관광협회	'79. 12. 10
	일본 북해도 삿포르관광협회	'94. 9. 10

사 회 단 체 명	외 국 사 회 단 체 명	체결일시
한국 보이с카웃트제주연맹	일본 나가 제2단보이с카웃트연맹	'82. 4. 3
신제주 로타리클럽	일본 와카야마 미나미클럽	'78. 1. 13
제주 상공회의소	재일 제주경제인연합회	'74. 10. 26
	대만 화련 상업회	'81. 11. 9
	일본 시모노세끼 상공회의소	'87. 7. 23
천지 라이온즈클럽	대만 타이페이 남문사자회	'87. 3
서귀포 로타리클럽	일본 와카야마현 고가와로타리	'81. 3. 27
서귀포 로타리클럽	일본 시즈오카현 아다미 J.C	'76. 3
한 립 농 협	일본 부리정농협	'82. 6. 28
성산포 수협	일본 후쿠오카현 가네사끼 어협	'89. 10. 21
구좌 라이온즈클럽	일본 후쿠오카현 기와대	'84. 2. 5
.	라이온즈클럽	

자료 : 제주도 국제통상협력실, 「업무현황('95)」

### 3) 「한일해협 연안시도현 지사 교류회의」 추진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지사 교류회의」는 '91년 1월 한국대통령과 일본국 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지방정부간 교류추진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한 후, 한국의 남부해안 4개시도(제주, 부산, 경남, 전남)와 일본국 큐슈(九州) 3현(후쿠오카, 나가사키, 사가) 등 한일해협연안 7개 시도현이 긴밀한 이해와 친선을 바탕으로 상호교류를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성장을 공유해 나가기 위한 정례적인 지방정부 최고책임자 회의로서 첫회의는 제주도 주관으로 '92. 8. 24 ~ 8. 26 제주도에서 개최되어 문화, 관광, 청소년, 농수산, 지역경제·통상분야 등에서 교류·협력해 나가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제2차 회의는 '93. 5. 31 ~ 6. 2 일본 사가현 우레시노마치에서 개최되어 ① 청소년(고교1년생 10명) 교류 ② 수산관계교류회의('93년 8월 나가사끼현) ③ 공무원기술 연수(5명) ④ 환경기술협력회의('93년10월) ⑤ 국제관광박람회 참가('93년 11월 후쿠오카), ⑥ 사가현 민속예술단 한라문화제 참가('93년 10월) ⑦ 대일지역 상품수출 (돼지고기 92톤/후쿠오카현) 등 통상교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졌다.

제3차 회의는 '94. 9. 6 부산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되어 큐슈지방에 제주도 농·수·축산물의 직교역 확대를 제안하여 공동합의를 얻어냄으로써 통상교류기반의 차원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 큐슈3현에 원활한 통관과 일본바이어와의 도내 수출업체간 중개역할, 각종 시장정보 교환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실무회의('94. 11 일본사가현)에서 이를 구체화했다.

#### 4) 기타 지원조직

제주도의 통상교류 지원조직은 매우 산발적이고 불안정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순수한 국제교류만 수행할 뿐 통상교류 업무는 감귤특작국 유통과(유통기획계)에서 감귤 등 특용작물 수출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또한 일반공산품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문제는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수출지원계, 중소기업지원계, 지역경제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은 산업경제국 축정과(축산물 유통계)에서, 수산물 수출은 산업경제국 수산과에서 분담하고 있다. 외국인사 초청 및 해외의전 사무는 내무국 총무과(서무계)에서, 외국인 행사참석 및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업무는 업무소관 국소관실과에서 추진하는 등 해외통상 교류관련 사무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마찰 등 조직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3. 제주도의 농림수산물 통상교류 실태

#### 1) 총괄

제주도는 세계화·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여 1차산업인 농수산물이 시장개방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경쟁수출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시책을 다각도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株)濟州交易 출범을 계기로 수출시장조사, 바이어발굴, 정보관리 등의 체계화로 세계최대의 농수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의 집중개척을 통한 통상교역을 확대해 나갈으로써 대일본 제1의 수출농어업 전략기지로 육성하는 한편, 점진적으

로 미주, 동남아 시장으로 확대, 수출국 다변화 계획사업들을 용역 또는 자체 연구중이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통상교류 잠재력을 집중개발해서 생산자, 무역업체, 행정기관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력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sup>40)</sup>

〈표 Ⅲ-12〉 제주도의 농수산물 교역현황('95)

(단위: 천원)

구 분		'94 실 적	'95 실 적	증 가 율
계		96,709	110,360	14%
1 차 산 품	소 계	41,031	49,360	20
	농 산 물	6,202	8,600	39
	수 산 물	33,240	37,560	13
	축 산 물	1,029	2,200	114
	임 산 물	560	1,000	78
공 산 품		55,678	61,000	10

자료: 제주도, 「농·수·축산물 수출종합계획('95)」

제주도의 통상기반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농어민의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수출업체수도 얼마되지 않을 뿐더러 그 규모도 매우 영세하기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료가 국내운송료에 비하여 고액이기 때문에 수출원가의 약 28%가 운임 등 수출품목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추가부담하고 있다.

도내 수출업체는 총 59개업체가 있는데 그중 농수산물 취급업체는 40개업체(68%)이다. 또한 수출품목도 총 33개업체중 농수산물 품목은 30개업체이다.

〈표 Ⅲ-13〉 제주도의 교역 품목수

(단위: 개소)

품 목 수	농 산 물	수 산 물	축 산 물	임 산 물
33	15	15	1	2

자료: 제주도, 「제주도 농수산통계('94)」

40) 제주도, 「농수축산물 수출종합계획」, 1995, PP. 21~27.

〈표 Ⅲ-14〉 연도별 제주도의 교역실적

(단위 : 천\$)

구 분	'90		'91		'92		'93		'94		연평균 증가율	
	비중	%										
전 체	36,098	100	37,875	100	40,265	100	75,265	100	96,709	100	23	
1차 산업	소 계	25,587	71	25,389	67	22,937	57	28,345	38	41,031	42	7
	농 산 물	673	2	2,287	6	4,374	11	3,538	5	6,202	6	73
	수 산 물	24,446	68	22,642	60	17,956	44	23,472	31	32,240	34	0.6
	축 산 물	-	-	-	-	-	-	565	1	1,029	1	77
	임 산 물	468	1	460	1	607	2	770	1	560	1	21

자료 : 제주도, 「농·수·축산물 수출종합계획('95)」

특히 농수축산물의 수출은 일본, 캐나다, 러시아, 대만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중 95% 이상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고, 캐나다에는 감귤 1,000톤 정도가 수출되고 있으며 러시아에는 감귤 50여톤이 구상무역 방식으로 수출되었다. '93년도 일본 농수산물 수입액 613억불중 제주도산 수입품은 0.04% (한국 2.8%)에 불과한 실정이며 한국 대일수출 물량의 1.6%수준밖에 안되고 있다.

〈표 Ⅲ-15〉 제주도의 대일본 교역현황

(단위 : 천\$)

구 분	총 수출액(A)		대 일본(B)		비 율(B:A)		
	'93	'94	'93	'94	'93 (%)	'94 (%)	
계	75,246	96,709	63,114	87,488	83.9	90.5	
1차 산 품	소 계	28,245	41,031	27,001	39,605	95.6	96.5
	농 산 물	3,538	6,202	2,194	4,776	62	77
	수 산 물	23,472	33,240	23,472	33,240	100	100
	축 산 물	565	1,029	565	1,029	100	100
	임 산 물	770	560	770	560	100	100
공 산 품	46,901	55,678	36,113	47,888	77	86	

자료 : 제주도, 「농·수·축산물 수출종합계획」, 1995.

## 2) 감귤 분야

제주도에서 감귤산업은 도내 총 생산액의 20%를 차지하고 농업 총 조수입의 67%를 점유하는 도민의 생존산업이면서 지역경제의 지주산업이다.

도내 경지면적의 40%, 농가구 66%의 비중을 차지하는 감귤산업은 제주도만이 생산할 수 있는 독점성 농업이어서 지금까지는 재배농가들이 특별하게 경쟁해본 경험이 없이 “생산은 곧 유통이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서 수입개방시대에 국제 경쟁의지가 미약하고 경험이 없다는 데에 문제가 되고있다.<sup>41)</sup>

UR협상이 타결되고나서 부터 수많은 경쟁력 강화 대안이 제시되고, 자구 노력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대책강구에 부심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수입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마지막 대안은 수입한 만큼 우리도 대응수출로 맞서지 못하면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감귤은 캐나다 등 일부 나라들에 수출이 이루어졌지만, 당사국의 교역조건, 품질과 가격 경쟁면에서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손해보는 수출을 하면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동안 9억9천만원의 수출 손실 보전금을 보상해 왔다.

〈표 Ⅲ-16〉 감귤수출 추진현황

(단위: 천\$)

구분 연도별	수출국	수출량	수출액	수출원가			손실액
				계	수매가	부대비용	
계		4,028	3,497	4,487	3,011	1,476	990
'90	캐나다 싱가폴	179	112	202	132	70	90
'91	캐나다	1,077	826	1,135	819	316	309
'92	캐나다 인도 니	1,112	1,052	1,052	596	456	-
'93	캐나다 러시아	1,133	956	1,057	708	349	201
'94	캐나다 러시아 일본 인도 니	1,033	825	1,221	884	337	396

자료: 제주도, 「감귤특작현황('95)」

41) 제주도, 「감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1995, PP. 10~25.

이렇게 수출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개척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95년부터 수출선을 일본, 미국시장으로 돌려 장기적으로 전망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험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표 Ⅲ-17〉 캐나다 수출에 따른 손실보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출 물량	판매가	비용	수출 손익	보전내역		
					농협	국비	도비
계	4,208	3,497	4,487	△990	298	474	218
'90	162	101	185	△84	84	-	-
'91	1,077	826	1,135	△309	149	110	50
'92	1,060	1,003	1,003	-	-	-	-
'93	983	856	1,057	△201	-	129	72
'94	926	711	1,107	△396	65	235	96

자료 : 제주도, 「감귤수출 추진계획('95)」

감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정생산과 품질(상품성) 향상이 최대 과제가 되고있다.

감귤생산이 대풍작을 이루었던 1992년도에는 718,700톤을 생산하여 262,330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린 반면, 1994년도에는 548,945톤을 생산하고도 조수익이 거의 두배에 가까운 552,120백만원을 올렸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표 Ⅲ-18〉 연도별 감귤생산 추세

연도별	재배농가 (호)	면적 (ha)	생산량 (톤)	조수입 (백만원)	호당소득 (천원)
1976	22,045	11,566	50,432	16,138	732
1977	18,344	11,709	115,500	25,870	1,410
1978	18,470	12,089	125,950	31,907	1,727
1979	19,019	12,909	172,150	55,088	2,896

년 도 별	재배농가 (호)	면 적 (ha)	생 산 량 (톤)	조 수 입 (백만원)	호당소득 (천원)
1980	19.996	14.094	187.470	54.500	2.725
1981	20.605	14.764	347.780	78.400	3.805
1982	20.645	15.500	323.402	100.903	4.887
1983	23.182	16.975	345.900	74.044	3.194
1984	23.182	16.975	261.000	115.582	4.985
1985	23.332	16.969	394.300	124.189	5.323
1986	23.685	16.959	333.100	141.598	5.978
1987	24.632	17.614	464.391	166.818	6.772
1988	24.892	17.829	412.660	210.579	8.459
1989	25.541	19.335	746.400	202.000	7.909
1990	25.616	19.414	492.700	315.100	12.301
1991	25.818	19.605	556.350	425.134	16.466
1992	29.541	21.727	718.700	262.330	8.880
1993	26.571	21.479	619.000	394.829	14.859
1994	26.596	21.448	548.945	552.120	20.760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분석」, 1994.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주감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들의 통상관행을 사전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조사분석해서 대응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 수출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피치 못할 손실의 발생에 대비하여 수출보험에 가입해 두는 문제도 중요하다.<sup>42)</sup>

42) 미국의 경우, '95년 제주감귤을 처음 수출하기 위해 Work-Plan (감귤 미국수출에 따른 식물검역규정)에 의한 제양병(Citrus Canker) 기주식물의 제거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미국 현지에 도착한 남제주군 감귤수출 단지의 감귤이 FDA의 식품위생 검사규정의 Monocrotophos 검출로 242톤의 감귤의 통관수속에 문제가 생긴바 있다.

### 第3節 外國 地方政府的 通商政策

#### 1. 日 本

일본 지방정부들의 통상교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찍부터 체계적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한국 지방정부가 대부분 KOTRA나 무역협회의 도움에 의존하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거나 해외물산전에 참가하는 소극적 형태로 추진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광역자치단체(시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들과도 상이한 점이다.<sup>43)</sup>

일본의 지방정부 통상교류는 상담회개최, 물산전개최, 경제교류관련 행사의 개최, 해외시장정보의 수집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들 각종 활동이 지역특성에 따라 다양한 추진체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19〉 일본 지방정부의 통상교류사례

사업명	자치단체명	대상지역	내용
상담회개최	福岡縣	홍콩	· 상대국 정부 및 상공단체의 협조로 현지에서 개최
	鹿兒島縣	싱가폴	· 상대국 정부 및 상공단체의 협조로 현지에서 개최
	神奈川縣	중국 요녕성, 말레이시아 베낭성	· 현지 투자 세미나 개최
물산전개최	岩手縣	홍콩	· 지역특산품의 수출진흥 도모
	鹿兒島縣	싱가폴	· 지역특산품의 수출진흥 도모
	北海道	미국	· 지역특산품의 수출진흥 도모

43) 박희정, 「국제교류」,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 1995. 3. PP. 30~31.

사업명	자치단체명	대상지역	내용
경제교류 행사개최	神奈川縣	서독, 중국 오스트렐리아	· 각국으로부터 관계자 초청 · 초청국제품 소개·전시 · 심포지움 개최
해외주재원 사무소설치	静岡縣	미국, 싱가포르 서독	· 해외정보 수집 · 교류활동 조정

자료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국제교류」, 1995.

일본의 지방정부들은 수출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수출산업·기업 육성 또는 유치가 지역정책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있다. 여기서 상담회는 무역관계 기업등이 백화점이나 제조업자 등과 함께 상대국 정부와 상공단체의 협조를 얻어 해외시장 현지에서 개최되는데 이 경우 현지 바이어와의 제품상담 및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투자상담회의 경우는 제품구매가 목적이 아니고 현지 자본투자가 목적이므로 일반적인 상담회와 차이가 있다.

물산전은 주로 지역특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주요 해외시장지역에서 개최되는데 개최지가 자매결연지역인 경우 문화교류가 병행되고 있으며 역으로 자매결연지역에서 일본 현지에 물산전을 개최하는 경우도 있다. (千葉縣 : 브라질 빠라州展 개최)

이밖에 판로개척활동은 시장조사사업, 견본시 참가, 해외전시회 개최 등이 있는데 주로 해당지역의 특화산업진흥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이루어진다. 지방정부 수준에서 국가를 거치지 않고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지역에서 경제교류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교류를 원하는 지역의 관계자를 초청하여 이들 나라 제품을 소개전시하고 심포지움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주로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정부간의 상호 교류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경우 자매도시인 상해시에서 요코하마 工業展覽會를 개최하였고, 가나가와(神奈川)현은 국제경제페어에 그리고

고베(神戸)시는 포토피아에 자매제휴전을 참가시킨 바 있다.

사실 지방정부의 경제교류는 자매제휴에 따른 교류사업 측면에서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財)自治綜合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지방정부의 자매제휴 관련사업중 경제기술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로 문화, 체육, 예술분야의 인적·물적 교류를 46.3%까지 고려한다면 지방정부의 자매교류나 우호교류보다 정책교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지방정부의 경제교류가 자매결연도시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중 하나는 자매결연이 단순하게 지리적 유사성, 역사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산업면의 유사성을 이유로 성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p>44)</sup>

〈표 Ⅲ-20〉 산업유사성을 고려한 일본 지방정부의 자매결연 사례

자 치 단 체 명	자매교류지역	산 업 공 통 점
山口縣 宇部市	뉴 캐 슬	석 탄 산 지
愛知縣 豊田市	디 트 로 이 트	자 동 차 공 업
佐賀縣 有田町	마 이 셴	도 자 기 산 지
北海道 白老町	캐 널	제 지 공 업
北海道 池田町	팬 팅 턴	와 인 (WINE)
茨成縣 日立市	버 밍 햄	제 철 공 업

자료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국제교류」, 1995. 3.

또하나 일본 자치단체의 통상교류중 자본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엔高로 인한 지방산업구조의 개편 필요성에 의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교류는 지역기업의 해외진출, 해외생산의 진전등 지역자본의 해외투자와 외국자본의 유치로 크게 대별되는 데 해외투자의 확대는 지역기업의 해외로의 생산 이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역생산의 정체 또는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

44) 박희정, 「전계논문」, PP. 32~35.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개편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외국자본의 유치는 지역생산의 증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지역고용 및 소득을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을 첨단산업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 2. 美 國

미국의 사례는 주정부 농무부의 통상교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sup>45)</sup>

미국 지방정부들은 일찍부터 세계화 시대를 대비하여 행정체제와 정책을 정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통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sup>46)</sup>

미국에서의 농산물 수출은 처음 시작하는 소기업들로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민간 수출업체들을 위해서 각 주정부의 농무부(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수출정보의 제공, 해외바이어 물색, 시장진출기법의 조언, 해외선적 조정 및 통상교류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sup>47)</sup>

각 주정부의 농무부는 13명의 훈련된 국제무역전문가들을 두고 수출업자들에게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업자를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품 생산, 해외시장개척, 재정문제, 선적방법 및 수출추세 등을 교육시키기도 한다. 이밖에도 주정부와 농무부는 지방사무소가 없는 연방정부 농무성 해외무역청의 지방사무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각주의 주요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① 수출입 거래 알선 ② 무역박람회 지원 ③ 수출상담 ④ 기술지원 등 연방정부의 해외무역청 기능을 수행한다.

45)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선진국의 수출정보 지원제도」, 농수산물유통공사무역사업본부, 1994, pp. 30~37.

46) Paul Brace, *State Govern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P. 11.

47) F. S. Berry, *OP. Cit.* P. 19.

전체 주의 농무부들이 모여서 州 농무부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Departments of Agriculture : NASDA)가 결성되어 있다. 미국의 각 지역별로는 4개의 지역별 州농무부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협의회는 해외무역청의 시장개척 협력단체 (Cooperator)로 등록하여 시장촉진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을 배정받아 수출촉진 활동비용으로 지출한다.<sup>48)</sup>

지역협의회는 비슷한 작물들을 생산하고 수출시장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주 끼리 그룹화 되어 있어서 수출업무에 협동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각 지역협회는 주요 해외시장에 지사를 설치 운영한다. 예를 들면 MIATCO (미중부지역국제농산물무역위원회)는 일본 동경, 대만 타이페이, 홍콩, 벨기에 브뤼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각 주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해외시장에 주정부지소를 설치하여 통상교류 촉진과 관련된 시장정보수집, 무역거래알선, 제품소개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통상교류 알선을 위하여 각 주내의 농산물 수출공급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지소에서 의뢰한 농산물 상품의 주문사양을 접수 즉시 수출공급업체에게 알려주는 기능(Trade Leads)도 수행한다. 반면에 해외의 수입구매업자들에게는 주내 생산 및 유통시설에 대한 참관과 견학을 알선하고 현지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표 III-21〉 미국 주정부연합 농산물 그룹 현황

기 관 명	기관영문표기	구성 및 설립목적
주농무부전국협회 (NASDA)	National Assoc. of State Dept. of Agri	50개주 농무부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협회로서 각주의 농무부장관, 위원장급으로 구성
미 동부지역 농산물 및 식품수출 위원회(EUSAFEC)	Estern U.S Agricultural and Food Export Council Inc	미 동북부지역 10개주 농무부 참여. 식품 및 농산물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설립

48) An O. Bowman and R. C. Kearney, *State and Local Govern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1991. PP. 461~463.

기 관 명	기관영문표기	구성 및 설립목적
미 중부지역 국제 농산물무역위원회 (MIATCO)	Mid-American International Agri- Trade Council	미 중부지역 12개주 농무부 참여. 농산 물 수출을 진흥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사
미 남부지역무역협 회(SUSTA)	Southern United States trade Association	미 남부지역 15개주 농무부로 구성된 협회. 회원주의 식품 및 농산물 수출진 흥을 목적으로 설립.
미 서부지역농산물 무역협회 (WUSATA)	Western U.S. Agricultural Trade Association	미 서부지역 12개주 농무부로 구성된 협회. 식품 및 농산물 수출진흥을 위하 여 설립

자료 : 농수산물 유통공사, 「미국의 농산물 수출 지원제도」, 1994.

미국에는 전역에서 약 70~80개 정도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자  
단체, 종자 및 종축단체 등이 통상교류 지원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의 대부분은 미농무부 해외농업청의 시장촉진 프로그램(Market  
Promotion Program)에 의한 지원자금을 받거나, 시장개척협력 프로그램  
(Market Development Cooperator Program)의 통상교류 협력자로 등록하고  
그 자금을 받아 통상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미국 농산물 통상교류지원의 기본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제휴  
(Partnership)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은 농산물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효  
과적인 통상지원 제도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많은 민간단  
체중에서 미국쌀위원회(U.S.A. Rice Council)는 다양한 통상 지원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해외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해외무역청의 해외시장개척 협력자  
금을 지원받을 뿐만 아니라, 해외농업청의 무역관과 미국대사관의 농업관계 외  
교사절 등의 도움을 받는다.<sup>49)</sup>

49) 미국쌀위원회 주요활동을 보면, ① 해외광고 ② 구매희망자 초청사업 ③ 시장조사 ④ 국제무역박람  
회 참가 ⑤ 교육 및 훈련 등이다.

미국 주정부들은 1989년 현재 40개가 넘는 주가 25개국에 걸쳐 110개 이상의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수도 워싱턴에 개설하고 있는 사무소의 수가 38개인 반면 일본에는 더 많은 39개소를 개설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대외 부분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국제화 노력은 1970년대 후반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와 함께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신연방주의의 기치아래 연방정부가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을 줄여나가자 이에 자극받은 주와 지방정부가 대외적인 통상교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다.<sup>50)</sup>

자연히 이들 정부의 개별적 노력들은 1970년대초 까지만 해도 우호, 친선 등 인적교류가 주를 이루던 일본의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주민의 이익을 확보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었다. 경제적 목적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유치 등이 이들의 통상교류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도시 정부를 중심으로 약 1,000여개의 지방정부가 이미 국제적인 통상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3. 英 國

영국에서의 지방정부 통상교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부터 급속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72년 이후 많은 지역공동체들이 해외자매결연을 맺을 상대방을 구하는 한편, 스스로도 자매결연 파트너가 되고자 했다. 결연의 중복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영국지방정부협회는 공인된 자매결연 관계를 기록 보존하며, 결연서비스를 제공할 합동결연위원회(JTC)를 만들었고, 1989년에는 이러한 업무가 지방정부협회들의 국제업무 부서인 지방정부국제부(LGIB)로 이전되었다.

50) 김병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1994. PP. 24~26.

영국의 첫번째 자매결연은 1920년, 서 요크셔의 케이슬리와 프랑스의 포이스 두노르드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후 자매도시 결연을 행한 지방정부는 매년 증가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증가를 보여 최근 몇년간은 매년 50건 이상의 결연이 행해졌다. 1994년 4월 현재 제휴수는 64개국 1,684개 도시에 이르고 있다.<sup>51)</sup>

1994년 4월 현재, 영국의 상대국별 통상교류도시 제휴수는 프랑스(808), 독일(441), 미국(70), 네덜란드(39), 벨지움(25), 이탈리아(23), 중국(23), 러시아(21) 등 총 64개국 1,684도시에 달하고 있다. (괄호안은 자매결연 도시수)

상대국으로는 유럽 각국이 거의 대부분이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양국과의 교류가 전체 체결수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지리적, 역사적 관계의 밀접함과 더불어 양국간이 가장 가깝게 느끼고 있는 외국어인 프랑스어와 독일어의 습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이유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영국과 유럽대륙 제도시와의 네트워크는 유럽대륙내 각 도시간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간의 교류는 영국과 프랑스간의 2배 이상이 되는 1,600여건,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는 290여건,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는 260여건이다. 따라서 영국과 통상교류체결을 맺은 상대도시끼리는 상호 자매결연을 맺어 3도시에 의한 통상교역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도 적지않다. 이런 도시들은 제휴 후의 활동도 3도시 공동으로 하기도 한다.

미국, 캐나다와의 교류는 우리나라보다는 활발하지만 다른 유럽도시에 비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고, 남미제국과는 거의 교류가 없다. 아프리카 제국, 동구권 국가들과도 수는 많지 않을지라도 결연이 행해지고 있는 일도 하나의 특색으로 볼 수 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와 영국 도시간에는 한 건의 자매결연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리적 소원함과 언어소통의 장애, 재정상의 문제 등이 커다란 걸림돌로 인식된다.

51) 최영희, "영국자치단체의 자매결연 현황 및 특징", 『자치단체 국제교류』,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1994. 12. PP. 44~48.

결연후의 활동과 특징으로는 첫째, 교류활동의 종류가 다채롭고, 연령·직업을 불문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한다는 것, 둘째, 많은 활동이 자원봉사 그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일, 셋째, 영국의 어려운 경제·고용상황 때문에 지역진흥을 목적으로한 통상교류가 현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래 지방정부 중심으로 아프리카 제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과 동 유럽제국에 빈번하게 기술원조·지도가 행해지는 것도 새로운 움직임으로 주목된다. 여러 활동분야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러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52)</sup>

### 1) 지방단체의 대표자, 전문가에 의한 교류

런던 33구중의 하나인 새턴구는 1988년,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 결연지인 유럽 4도시-덴마크, 독일(2도시) 및 네덜란드와 합동 연구회를 가졌다. 4도시로부터 쓰레기처리 문제의 전문가가 1주간의 프로그램에 참가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시야에 근거한 리사이클의 사고방식이 불가결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1988년 10월에는 스코틀랜드와 독일 바이에른 주로 부터 100명 이상의 통상 결연관계자가 모여 스코틀랜드-바이에른주 자매도시회의를 개최, 통상교류에 수반되는 교통의 문제, 특별한 목적을 지닌 그룹을 위한 통상사업, 무역거래에 관한 PR의 방법 등을 논의했다.

### 2) 광범한 계층에 따른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런던 남부, 웨스트서섹스의 지체스타와 프랑스 샤프레의 결연은 1959년에 이루어졌는데 통상교류의 의미를 젊은이들에게도 이해시키고자 전단계 교류 행사로서 "스포츠제휴 88"이라는 이벤트를 계획해 패러슈팅, 마라톤 레이스, 하키, 유도, 축구 등의 다양한 경기를 행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런던 북부 노포크의 노라쉬와 독일의 고브렌츠의 결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정협회, 기독교 민주동맹, 경제단체대표들이 참여한 사진전, 특산품전, 통상제휴기록전 등의 행사가 열렸다.

52)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reau, *List of Twinning*, 1994, PP.52~55.

### 3) 산업진흥, 경제발전을 위한 교류

이 분야는 최근 들어 활발하게 된 것이지만 크게 나누어 기술자, 기능자, 농업종사자 등 전문분야의 통상교류와 특산물, 페스티벌 개최의 두 종류가 있다.

웨일즈지방에 접한 글래스터셔의 사이렌스터는 제휴지인 독일의 이츠보와 지속적인 기술자 중심의 통상교류를 행하였다.

### 4) 개발도상국·동유럽제국과의 기술원조

제2차대전 이후 영국 지방정부의 통상교류활동은 주로 유럽대륙과 이루어졌으나, 최근 10년 동안은 개발도상국 및 동유럽제국 지역사회와의 교류가 증가되고 있다. 일례로 런던북부 하트포트셔의 워트포트는 통상교류 결연지인 구 소련의 노브그로드와 교류기반 확대를 위한 기술원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4. 中 國

중국의 통상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기초위에서 시장경제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원칙을 세우고 경제운영 및 관리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최근 시장경제의 개방바람이 중국 대륙을 일깨우면서 4대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과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① 경제관리 체제의 개혁 ② 대외개방정책의 지속적 추진 ③ 평화적 국제환경의 정립 등의 세가지 정책 목표를 세우고, 工貿結合과 技貿結合 및 輸出入結合의 三結合 원칙하에 통상정책과 대외개방 정책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sup>53)</sup>

중국의 주요 대외 개방지역을 유형별로 보면

-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 深川, 珠海, 汕頭, 海南省 등 5개지역.
- 연해개방도시(Coastal Open City)와 경제기술개발구

53)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1994. 2. PP. 36~40.

- 大連, 烟台, 秦皇島, 天津, 連雲港, 青島, 南通, 上海, 寧波, 溫州, 福州, 廣州, 甚江, 北海 등 14개 지역
- 삼각주 연해 경제 개방구
  - 長江三角州, 珠江三角州, 閩江三角州 등
- 山東半島와 遼東半島 및 발해만 등의 경제개방구
- 내륙 개방도시와 高新技術 산업개발구
- 保稅區 등이 있다.

중국의 경제체제 및 시장의 특성은<sup>54)</sup>

- 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혼합경제 모델의 추구
- ②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이나 장기적 시장
- ③ 정치적인 강대국이나 경제규모나 제도 등은 후진국 수준
- ④ 자국 중심의 경제개발추진
- ⑤ 주도권을 중국인이 장악하는 시장
- ⑥ 원자재 및 중간재와 기술도입시장
- ⑦ 부존자원이 풍부한 자원보유시장
- ⑧ 유망한 건설 및 프로젝트 사업 시장
- ⑨ 우리와 협력가능성이 크고 유망한 시장
- ⑩ 과감한 경제개혁과 대외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대중국 통상교류 진출시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중국의 시장조사를 위한 각종 간행물과 정보 및 매체의 효율적인 활용과 중국이 참여하는 각종 국내외 행사 또는 전시회 및 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특유의 정보를 입수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내의 주요 품목별 전문 통상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유지와 홍콩의 통상무역기관의 효율적인 활용은 물론 중국내의 유통시장망 및 변경무역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54) 농수산물 유통공사, 「국제농수산물 교역정보」, 1994, PP. 21~25.

그리고 화교 및 華僑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라든가 홍콩의 대중국 전문딜러 및 대리인을 활용하거나 중국의 주요 프로젝트사업에의 공동 참여를 통한 통상교류 창구를 개척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구상무역 등 다양한 거래형태 및 방식을 통한 교역을 추진해 나가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중국내 거점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시장개척 및 상품 차별화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55)</sup>

중국에서의 지방정부 개념은 민주주의 사회의 경우와 여러가지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계시장을 무대로 가장 활발한 통상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는 中國의 蘇州의 경우를 표본적으로 예를 들었다.

蘇州는 상하이 근처 양자강 어귀에 위치해 있는 2,500년 古都로서 1978년부터 적극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물결에 힘입은 덕택이었다.

1985년 3월에 해안개방도시로 지정된 후, 1978년 32억元이었던 市의 GNP가 1993년에는 526억元으로 증가함으로써 연평균 20%씩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도시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514元에서 4,256元으로 상승하였고, 농부들도 연평균 소득이 204元에서 2,221元으로 증가되는 혜택을 입게 되었다.

蘇州가 관리하는 6개의 市모두가 중국의 상위 100위권에 랭크되었으며, 현재 5개의 국가 차원 개발지역 즉 중국 - 싱가포르 소주산업공원, 소주 하이테크 산업개발지역, 昆廬경제기술개발지역, 張家港보세지역, 소주太湖 호수관광휴양지의 본거지를 이루고 있고, 7개省 차원의 경제기술개발 지역과 농촌산업기반을 건설했다.

이와같은 눈부신 도시 발전의 원인은 지방의 자치정부 단위로 선진 국제도시들과의 활발한 통상교류와 개방정책의 결과였다. 1995년 현재 이 지역에는 17,000개 기업의 2/3는 鄉鎮(Township)기업이고 각 농촌가정의 한사람 정도는 이러한 기업섹터에서 일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결과 농촌거주자들이 마음을

55) 한국국제 교류재단, 「경제·통상교류 실무요령」, 1994, PP. 20~25.

열고 시야를 넓히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농촌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과감히 유치했고 해외에도 기업을 설립했다.

농촌산업을 공급한 수출품은 1993년 이지역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1994년 말까지 6,397개의 외국자본 회사를 유치했고, 이중 4,200개 이상 기업이 향진기업에 의해 설립되었다. 또 이지역이 해외에 설립한 273개 기업의 1/2이 市企業에 의해 운영된다.

많은 농촌산업을 기술혁신과 생산품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첨단 외국장비와 기술을 수입하기 위해 合作投資業體 (Joint Venture) 를 설립하고, 지방정부들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제기술개발지역을 건설하는 정책을 과감히 채택했다. 1992년 10월 자치정부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중국에서 처음으로 강변 보세구역을 설립하여 1993년말에는 지역총투자액 7억4천6백만 달러의 191개 기업을 승인했다.<sup>5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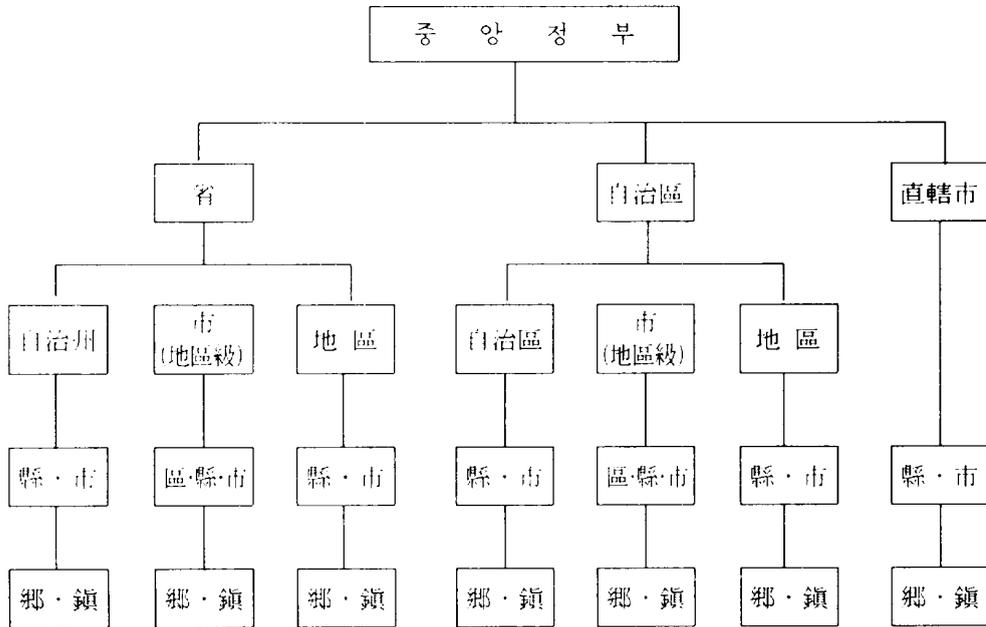
상하이와 소주사이에 위치한 昆山市는 인구 57만명에 921km<sup>2</sup>의 비교적 작은 도시인데, 1993년말에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하는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1,0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3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끌어 들였다.

1984년 4월 일본 요코가와 전자기계 주식회사, 소주크리스탈공장, Xian미터기 제조 회사에 의해서 합작으로 설립된 소주 - 요코가와는 첨단기술산업 개발 지역에 위치한 많은 외국자본 기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지역은 새로운 현대도시로 변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하이테크와 주요 중심지적인 조건들을 선진외국 자치정부들과의 끊임없는 통상교류를 통해서 수용해 나가고 있다.

56) 한국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 「지방교류소식」, 1994. 10. pp. 16~18.

〈표 Ⅲ-22〉 중국지방정부 조직표



자료 : 한국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지방교류소식」, 1994.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개인소유제 보다 국가 소유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중국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농촌구조의 모델은 촌단위 행정 기관으로서 촌민위원회와 그 산하의 각종 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개혁과정에서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경제 조직으로 鄉(우리나라의 면에 해당), 村(里에 해당), 鎮(군에 해당)에 소재하는 향진기업이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등의 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는데, '94년말 현재 중국의 향진기업은 총 24,529천개이며 취업자수는 총 123,453천명으로 밝혀져 있다.<sup>57)</sup>

57)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수산물 무역정보」, 1995, 2월호, P. 16~18.

## 第Ⅳ章 濟州道の對日 通商政策의 問題點

### 第1節 對日通商 市場開拓의 隘路와 限界

#### 1. 대일수출 조직의 비합리성

현재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은 한국무역협회(KOTRA)의 고려무역과 농수산물유통공사의 韓國物産, 그리고 농협중앙회의 協同貿易, 축산업협동조합의 畜産貿易 및 一般輸出商社로 대별할 수가 있다.<sup>58)</sup>

고려무역은 정부의 정책무역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물산은 농수산물의 갯터링이 수출을 주종으로 대일수출이 이루어져 왔다.

협동무역은 농협의 무역부에서 독립해 생산자 농민의 수출 대행기구로 최근 설립되었으며, 축산무역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다. 또한 일반 수출상사는 순수한 개인기업으로 수입국의 일반 수입상사 또는 대형 소비업체와 직거래 하고 있으며, 경남무역, 제주교역 등 제3섹터 방식의 지방단위 회사들도 있고, 그외에 271개의 유통 무역업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면 상당수의 업체가 난립되어 있다. 이들 업체들은 수출증대를 위해 나름대로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수출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심해 수출단가를 하락시키거나 저질품의 수출로 인한 한국상품의 이미지 저감, 덤핑수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산하 수출기구가 본래의 설립취지대로 중소수출업체의 수출대행 업무와 수출시장개척을 통한 수출증대를 기하기 보다는 자체 수익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어 중소 수출업체와 잦은 마찰을 빚는 데서 발생한 문제라 하겠다. 특히 정부산하 수출기구는 설립초기 수출상품의 성격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취급상품의 품목을 달리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취급영역을 뛰어넘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어 일반 수출업체와의 마찰은 물론 전문성 결여에 따라 손실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8) 이충용, 「일본 농산물시장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PP. 54~91.

## 2. 시장정보 수집 및 전달체계의 비조직화

현재 해외시장 정보수집은 각 수출기구별로 단독 수집하고 있으며, 정보교환 역시 수출선의 잠식을 우려해 상호 표면화 시키지 않으려 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특히 정부산하 수출기구의 경우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장정보 수집과 전달보다는 오히려 일반 수출업자가 개척한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과당경쟁으로 인한 상호 손실은 물론 마찰을 야기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도민의 기업으로 기대속에 출범한 (株)濟州交易은 수출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데다가 그 기능마저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도(산업경제국)의 업무간섭과 통제를 강하게 받고 있어서 제대로된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제주도의 통상교류 조직도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과」, 「유통과」 그리고 「수출지원계」, 「유통기획계」, 「축산물 유통계」, 「어정계(수산물수출)」 등 여러 파트로 분산되어 있어서 시장개척의 정보와 전달체계가 조직화 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株)濟州交易 이외의 일반 수출업자는 대개 바이어를 통하거나 대형 유통업자 또는 대형 소비자를 통해 정보수집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상담 중복에 따른 시장정보의 혼란은 물론 상품 거래 경합에 의한 국내 총체적인 손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출(감귤)은 제주교역과 농협이, 감귤 수입은 감귤협동조합이 수산물(넙치)수출은 수협, 축산물(양돈)수출은 축협(양돈조합)이 담당하는 등 생산자단체들의 난립에 따른 경쟁 현상도 통상교류 정책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출시장의 정보수집은 업체의 시각이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업체별 이해관계 때문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상대국 수입자측에서 역 이용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비록 각 수출업체가 시장정보를 전달한다 해도 농산물의 경우 수급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조사시기 또는 조사방법 등 간접적인 자료로서는 시의성이 결여되어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3. 상품홍보 수준의 낙후성

도내 수출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적인 해외시장 개척 및 확대에 어려움이 많고 지방정부 차원의 상품 해외홍보 수준도 매우 낙후되어 있다.

정부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수산물 해외홍보 활동은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사례로 일본 오사카 판매전시장, 화란 로테르담 한국 유통분배센터, 미국 L.A 농어촌 특산물 전시판매장 등이 있고, 해외 박람회라든가 농림수산부 통상협력 2담당관실, KOTRA와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주관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시장 개척단 및 수출촉진단 파견, 그리고 해외공관을 통한 한국산 과실 입맛들이기 사업과 아울러 홍보책자나 비디오들을 사용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공식 홍보활동은 획일적이고 일시적으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한정된 지역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제주도와 같이 특수한 지방 실정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효과가 최종 소비시장에 까지 전달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있다.

## 第2節 通商構造上的問題

### 1. 수출상품 구조의 취약성

우리나라의 대일수출 주종품목은 1차산품 특히, 가공도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상품과 기능도가 낮은 제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조적인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1990), 식료 및 직접 소비재가 16.7억 달러로 전체 대일 수출에서의 비중이 12.4%, 기능도가 낮은 경공업제품 중심이 52.2억달러로 3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공제품의 대일수출은 지속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공도나 상품 경쟁성이 높거나 고부가가치성인 상품의 경우 일본의 국내시장은 넓지만 일본제품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수출되는 제품들에 비해 너무나 경쟁력이 약한 실정이다.<sup>59)</sup>

59) 朴聖觀, "한·일무역의 불균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P. 22~26.

일본 소비자의 수입품에 대한 기호 변화에서도 우리 나라의 수출상품의 대응 수출 취약성을 노정시키고 있다. 이는 일본 소비자들이 점차 농산물 수입품에 대해서 호감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품질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NICs의 중저가형 농수산품의 대일시장 진출이 어렵게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 2.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의 약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대일수출 가격경쟁력은(1990) 비교대상 7개국중 태국과 대만을 제외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에 뒤져 있고 그 격차도 해마다 더 커지고 있다. 대일 수출가격 경쟁력이 뒤진 요인은 싱가포르에 비해서는 물가상승과 환율요인의 복합에 의한 것이었고,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미국 등에 비해서는 환율요인에 기인한 것이었다.

우리의 가격 경쟁력은 <표 IV-1>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1990년에 더욱 떨어졌고, 그 결과 1889년에는 앞섰던 대만에 비해서도 뒤지게 되었다. 우리상품의 대일수출 저하요인으로서 가격경쟁력 못지않게 비가격 경쟁력 약화도 크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가격경쟁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대일수출을 증대시키려는 경향으로써, 품질, 포장디자인, 기술, 해외운송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간과해 왔다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sup>60)</sup>

<표 IV-1> 주요국의 대일수출 가격 경쟁력 지수 비교

주요국	1984	1987	1989	1990
한국	94.9	137.9	114.9	113.0
대만	99.0	123.3	111.1	116.9
싱가포르	96.2	151.3	148.1	-
태국	88.4	129.6	121.7	113.8
인도네시아	98.4	176.5	176.3	-
중국	82.6	156.5	151.9	-
미국	101.0	144.7	141.1	132.4

자료 : 한국은행, 「주요국의 경제지표」, 1991. 3  
통계청, 「한국 경제지표」, 1990. 4/4

60) 박성관, 「전계논문」, P. 27.

### 3. 대일 마케팅력의 부족

우리 농산물에 대한 대일 마케팅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마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일본시장구조, 일본소비자들의 구매 형태에 대하여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많다. 이러한 시장조사의 미흡함이 일본시장 진출은 어렵다는 고정관념과 생산농가의 수출의지 결여 및 비관적 잠재의식이 내재하게 된 원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Brand 인식면에서도 일본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본시장의 특성은 길고 복잡한 유통구조와 특수한 상관습을 가지고 있어서 수출관료 개척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일본인의 지나친 자국 상품 중시경향, 정확하고 까다로운 품질요구 성향 등이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서는 가격, 품질, 포장디자인과 아울러 세심한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일시장마케팅 활동은 상품기획이나 유통관리, 소비자 관리면에 있어서 대일수출 경쟁국들에 비하여 상당히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up>61)</sup>

## 제3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第3節 對日 農産物 通商障壁의 問題

### 1. 두터운 관세장벽

일본의 수입과 관련된 법 체계는 크게 관세체계와 수입관리 체계로 나누어진다.

관세율은 과세정율법에 따른 기본세율과 관세잠정 조치법에 따른 잠정세율 및 특혜세율, WTO 협정의 양허세율로 나누어지며, 할당관세 및 특혜관세할당(특혜관세의 적용 한도액)은 각각 관세할 및 외국무역관리법(외환 爲替 및 외국무역관리법)을 기본으로 “수입무역관리령”을 포함하는 政省令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입쿼터, 수입의 승인, 보고, 사후심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62)</sup>

61) 이충용, 「전계논문」, 1994. pp. 75~84.

62) 한국국제교류재단, 「경제·통상교류 실무 요령」, 1994. PP. 54~46.

일본의 수입수속은 품목에 따라 수입할당품목, 원산지 선적지에 대한 승인품목, 통상성의 확인품목, 수출국의 수출허가품목, 그리고 이들 수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품목 등 해당조건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조약 부속서에 제재된 동식물 또는 가공품과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서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도 있다.

이와같은 수입절차의 복잡성과 과다한 서류의 제출 요구로 수입수속이 복잡한 품목 수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

주요 수입농산물의 평균관세율은 품목에 따라서 법정관세율과 실행관세율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나, 품목별로 크게 차이가 있다. 농산물의 법정관세율에 대한 실행관세율은 UR 협상시에 제출한 관세인하 또는 유보제한 실행에 의해 상당히 인하된 것이 사실이나, 실행관세율 인하정도는 자국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크게 낮춘데 반하여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또는 전혀 없는 품목은 거의 인하하지 않고 있어 지나치게 잇속을 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차산품과 가공품의 실행관세율(12.5%)도 미국(4.7%)이나 EC(6.7%)에 비해서 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관세율 격차(우리나라 1차산업의 경우 평균 16%~25%)가 현저하게 높아 관세장벽이 두터운 실정에 있다.<sup>63)</sup>

정부단위에서 한·일통상협력 회의시 수차례 걸쳐서 관세인하를 촉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본측은 국제무역기구에서 재검토 될 문제라는 입장이라고만 고수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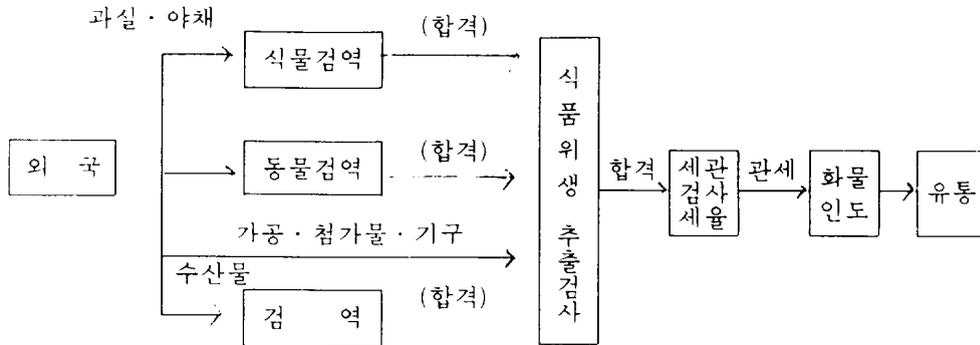
## 2. 까다로운 수입절차

일본의 농산물 수입절차는 <표 IV-2>에서 처럼 우리나라와 같이 선박이나 항공편으로 수입된 농산물을 1차적으로 품목에 따라 검역과 식품위생 검사를 거쳐 합격된 품목에 한해서 세관의 관세부과 상당액을 납부한 다음 시중에 유통된다.<sup>64)</sup>

63) 모든 비관세 장벽의 포괄적 관세화의 원칙하에 예외없는 관세화와 현행 시장접근(CMA) 및 최소시장 접근(MMA)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선진국은 '95년부터 6년동안 최저 15%, 평균 36%의 관세를 감축하고 개도국은 10년동안 최저 10%, 평균 24%를 감축하게 되어있다.

64) 이종용, 「진세논분」, pp. 79~80.

〈표 IV-2〉 일본의 수입 농수산물 검역절차



자료: 대한무역진흥공사, 「주요국의 동식물검역제도」, 1992.

식물은 식물검역, 동물 및 식육은 동물검역, 가공식품과 첨가물은 식품위생검사, 수산물은 검역과정을 거쳐 통관이 이루어진다.

식물검역은 농림수산성 식물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42종의 병충해를 주요 병충해로 지정하고 수입항에서 검사하고 있으나, 공항이나 항구에서 발견이 불가능한 품목은 격리 재배 조사를 실시해, 작목에 따라서는 1작 또는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검사결과 병충해가 발견되면 수입을 금지하거나 소독후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심하고 까다로운 일면이 있다.

현재 일본의 식물검역소는 요코하마, 고베, 나고야, 모지, 나하등 4개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수입항은 77개항구와 17개 공항이 있다. 더욱이 최근 농산물의 수입량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 및 수송형태변화(컨테이너 수입) 또는 수송속도의 고속화 등으로 병충해 침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인력부족으로 검역기간이 길어져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수출 상품의 경우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특히 자국에 분포되어 있는 병충해나 신선 채소의 진딧물 같은 것이 발생해도 식물검역법상 훈증소독이나 폐기 혹은 반송하게 되어 있어 이로 인한 비용 증대는 물론 품질저하 문제 역시 크게 대두되고 있다.<sup>65)</sup>

65) 이중용, 「전계논문」, PP. 81~84.

이와같은 검역절차에 따른 문제점과 검역조건의 완화를 위해서 일본 검역관의 한국내 상주에 의한 현지 검역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으나, 식물검역 대상 농산물의 대일수출 물량에 비해서 현지 검역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의 선편 반입이 가장 많은 일본의 九州地域 下關港을 비롯해 門司港 및 福岡港의 검역 실례를 보면 栽植用 종자의 경우 유채종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불합격품으로 소독후에 통관했으며 생과실은 종류도 적을 뿐만아니라 물량이 적어 불합격 통관된 것이 많은 실정이다.

## 第4節 物流費用의 過多로 인한 價格 競爭力의 脆弱性

### 1. 物流費用의 過多

유통이라는 경제활동은 物的流通과 商的流通이라는 두가지 면으로 그 범위를 분류할 수 있는데 物流(物的流通 : Physical Distribution)는 상적유통의 2차적기능으로서 상거래의 성립이후에 상품을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로 인도시켜 시간적·공간적(장소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우리나라(특히, 제주도)의 수출입 화물을 유통시키는 기초하부 시설인 컨테이너 화물은 전국의 95%가 부산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나마 부산항 입항 물동량의 60%가 부두까지 직접 내륙운송되지 않고 부두밖의 부산시외에 소재하는 Off dock CY를 거쳐서 수송되고 있다.

결국 전문장치 능력이 없는 재래부두에서 처리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100%가 Off dock CY를 경유해야 하는데, 수송단계의 다단계로 인해 일관운송 시스템이라는 컨테이너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과다 발생, 시간지체, 부산시내 교통난 등에 따른 추가적 부담요인이 많아 수출원가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66)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무역운송실무』, 1995, PP. 13~16.

제주도내 유통구조와 도매기능의 취약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sup>67)</sup>

지역 유통기능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流通迂廻度(W/R 비율)는 1993년의 경우 0.51%로 전국의 0.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sup>68)</sup> 1988년중 일본의 유통유회도가 3.9%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뿐 아니라 제주지역의 유통기능 특히 도매업의 기능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유통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직관점 및 특약점 형태로 생산물의 유통기능을 직접 담당하고 있어 유통정보가 육지부의 제조업 위주로 편중되어온 데다, 제주도는 산업구조상 농수산업 중심이어서 기본적으로 유통시장 규모가 영세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도내 생산품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귤의 도매 기능이 서울등 육지의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도매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한 요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유통기능의 미발달 및 시장기반의 취약과 더불어 판매 및 재고관리에 필수적인 정보화에 필수적인 정보화와 표준화의 정도도 부진한 상태인 데다, 항만 하역 노동제도의 불합리와 하역수준의 기계화, 자동화가 미비한 데 따른 유통비용의 과다에 문제가 많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표 IV-3> 감귤의 유통마진

(단위 : %)

구 분		1991(남제주 → 서울)	1992(서귀포 → 서울)
농 가 수 취 율		46.4	51.2
유통 마 진	총 마 진	53.6	48.8
	비 용	25.9	15.6
	이 운	27.7	33.2
단 계 별 마 진 율	수집반출단계	27.8	19.5
	도 매 단 계	11.9	5.3
	소 매 단 계	13.9	24.0

자료 : 농수산물 유통공사, 「농산물출하 및 유통실태」, 1992.

67) 한국은행제주지점, 「외국전문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응대책」, 1995, PP. 18~22.

68) 유통유회비율(W/R비율)은 (도매판매액/소매판매액)을 나타내는 비율로 선전국의 경우, 동 비율이 높으면 도매 기능이 높음을 나타내는데, 경제발전과 더불어 원자재 등의 도매거래액이 크게 증가하고, 도매상의 정보수집기능과 금융기능 등이 크게 향상되면서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귤 유통 비용의 경우 제주에서 부산까지 수송운임이 부산에서 일본(고오베)이나 미국(시애틀) 또는 캐나다(밴쿠우버)까지의 운임에 비해 같거나 더 많이 들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도산 감귤의 경우, 유통비용은 15kg상자 기준 3,450원으로 조사됐다. 유통비용중('95) 제주에서 부산까지 FOB 운임은 미국(시애틀) 수출용이 kg당 108원, 부산에서 시애틀까지는 kg당 85원, 일본(고오베) 수출용은 제주에서 부산까지는 kg당 80원, 부산에서 고오베까지가 kg당 80원으로 비슷한 수준이고, 캐나다(밴쿠우버) 수출용은 제주에서 부산까지는 kg당 80원, 부산에서 밴쿠우버까지가 kg당 8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감귤의 유통비용

(단위 : 원/15kg 상자)

항 목	'94년산	'95년산
계	2,810	3,450
상 자 대	520	650
운 송 료	940	960
선 과 수 수 료	360	400
하 역 료	150	150
상 장 수 수 료	840	840

자료 : 농협제주지역본부, 「업무보고」, 1995. 10.

## 2. 유통체계의 비합리성

농산물 유통구조는 공산품과 달리 자연조건의 제약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공급의 계절성, 생필품적 특성에 의해 수요의 탄력성이 낮아 조금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해도 가격의 급등락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69)</sup> 여기서는 우리와 제반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유통구조의 취약한 문제점을 조명시켜 보고자 한다.

69) 박희성, 「지방산업구조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PP. 15~20.

## 1) 산지 유통구조

규모가 영세하고 중산간 지역이 대부분인 일본의 산지 유통에서의 특성은 강력한 응집력을 지니고 있는 각종 생산자조직 (야채 4,951개, 과일 2,723개)과 이들이 직접 운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하는 각종 집출하시설(집하장 및 선별장)에 의한 인위적인 규모화에 있다고 본다.

제주도의 경우, 산지에서의 농산물 수집·출하 주체여야 할 생산자단체의 출하비율이 30%를 밑도는 반면 일본의 경우 종합농협, 전문농협, 임의조합을 통한 계통출하 비율이 80%를 웃도는 것이 그들이 강한 응집력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작은 조직들(영농부회, 소위 우리의 작목반)은 보다 더 큰 조직인 단위조합에, 단위조합은 현 연합회에, 현 연합회는 중앙 연합회에 연결되면서 결국은 보다 많은 조직이 보다 많은 힘과 교섭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았고 상부조직은 하부조직이 신뢰감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끊임없이 제공했다는 것이다.<sup>70)</sup>

주로 대형화된 집출하 시설을 이용한 전문인력의 영농지도 활동, 즉 농협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라이파이젠의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구호가 형식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산지유통구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조성 측면에서 전체를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 제도와는 달리 중앙정부가 60 ~ 65%, 지방정부 17.5 ~ 20%, 생산자단체 17.5 ~ 20%를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점이다.

둘째, 기금에 의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기금에 등록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되 반드시 종합농협 등을 통하여 지정 소비지에 계통출하해야 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셋째, 보조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사전 약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

70) 박희성, 「전계논문」, PP. 21~22.

조금의 지급한도를 설정하되 판매가액이 평균 가격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과잉 생산의 책임을 생산자측에 돌려 일체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이는 생산조정 을 위한 간접적인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것이다.

## 2)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일본의 도매시장 유통구조는 중앙도매시장이 88개소인데 비하여 우리가 10개 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공영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체제나 지방 도매시장의 조직체계가 외형상으로는 서로 비슷하다. 우리의 대표적인 공영 도매시장인 가 락시장이 인위적인 분류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화 함으로써 개장이후 끊임없이 갈등 관계를 유지하는데 비하여 일본의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 중앙 도매시장 설립시 도매상을 도매업자로 수용하고 중간도매상을 중도매 업자로 질서 있게 수용함으로써 다수의 도매업자 및 중간 도매상간의 자연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데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시장내 물품의 운반에 있어서도 「모토로라」라는 소형 운반차가 운반을 담당하 는 등 생력화 현상의 차이가 두드러지고 파레트 단위의 물량 적재가 가능한 것은 산지단계에서 부터 전 품목의 규격 포장화가 선행됨은 물론이다.

우리가 100% 상장경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대형 슈퍼마켓 등의 요구 (익일 10시 개장을 위하여 9시까지 물품의 진열이 종료해야 함) 등 소매유통 패턴에 부응하여 경매는 사실상 30%를 밑도는 수준이고 70%이상이 예약상대매 매, 선취매매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해서 우리의 소매유통 형태가 큰 취약점이 있다고 본다.<sup>71)</sup>

또 우리 도매시장 법인이 산지에서의 수집능력이 취약하고 소극적인데 비하여 일본 도매시장 법인은 매우 적극적으로 산지 수집 활동을 전개하는 점인데 이것 은 지역농협 등의 계통출하 비율이 80%인 점과 관련하여 생산자측의 가격 교섭 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71) 박희정, 「전세논문」, PP. 23~24.

### 3) 농수산물 집배센터

1968년 설립된 동경집배센터를 비롯하여 일본에는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가 직영하는 3개의 집배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거래금액은 전체 시장거래 물량의 5%에 불과 하나 도매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sup>72)</sup>

이러한 집배센터의 이점은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사전 계약에 의해 이루어져 생산자에게는 가격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출하되며 계획생산 체제 유지가 가능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거래가 가능하여 물건구색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계획적인 상점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우리의 물류센터 건설추진과 관련하여 유념할 점은 일본 집배센터의 경우 종사자의 대부분이 도매시장의 중매인 이상이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 第5節 濟州道産 農産物에 대한 差別的 認知度 不在

제주도의 무공해 청정 지역성에 대한 차별적 “원산지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 Brand화가 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제주도에 1994. 5. 9~5. 25 어간에 일본시장에서의 한국산 농산물의 인식도 및 대일수출 기반을 연구분석 하기 위해 일본의 농산물수입상 및 일본주재 한국 지상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일 농산물 인지도를 살펴보고자 한다.<sup>73)</sup>

(1) 일본시장에서의 한국 농산물과의 경쟁대상국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수의 61.6%가 중국을 첫째 경쟁국으로 들고 있으며, 이어서 일본이 15.4%로 2위, 대만이 12.8%로서 3위, 아세안이 5.1%로서 4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타 국가로서는 북한(5.1%)을 들고 있다.

72) 일본의 집배센터는 한국의 물류센터와 같은 개념이며, 산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킴으로서 유통단계를 축소시키는 중요한 기능이다.

73) 제주도, 「일본시장에서의 한국농산물 인식도 및 수출기반조사」, 1994, PP. 5~10.

〈표 IV-5〉 일본시장에서의 한국농산물과의 경쟁상대국

단위 : 건. (비율 : %)

총응답수	중 국	대 만	아세안	일 본	호 주 뉴질랜드	미 국	유 럽	기 타
39	24	5	2	6	0	0	0	2
(100.0)	(61.6)	(12.8)	(5.1)	(15.4)	(0.0)	(0.0)	(0.0)	(5.1)

(2) 한국농산물과 경쟁대상국 농산물과의 경쟁력 비교를 묻는 설문에서 가격 경쟁력은 응답자의 72.5%가 경쟁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IV-6〉 대일 수출농산물의 가격 경쟁력

(단위 : 건. %)

총 응 답 수	낮 다	동 수 준	높 다
40	5	6	29
(100.0)	(12.5)	(15.0)	(72.5)

반면, 동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이 15.0%, 낮다는 응답이 12.5%로 나타나고 있어, 대일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3) 대일수출 농산물의 인지요인별 평가내용을 묻는 설문에는 비가격 경쟁요소로서 농산물 자체의 특성인 맛, 신선도, 청결성, 색깔등 4가지 요소와 농산물 및 공산품 모든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품질의 일관성, 포장, 납기, 공급의 안정성 등 4가지 종류, 총 8개의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맛은 경쟁국들에 비해서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응답한 것이 55.0%이고, 동 수준이라는 응답수가 42.5%인데 비하여 낮다는 응답수는 2.5%에 불과했다. 따라서 맛면에서는 경쟁력이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IV-7〉 대일수출 농산물의 인지요인별 평가요소

(단위: 건, %)

평가요소	총응답수	양호	동수준	낮다
맛	40 (100.0)	22 (55.0)	17 (42.5)	1 (2.5)
신선도	39 (100.0)	19 (48.7)	15 (38.5)	5 (12.8)
청결성	39 (100.0)	18 (46.2)	14 (35.9)	7 (17.9)
색깔	40 (100.0)	17 (42.5)	17 (42.5)	6 (15.0)
품질의 일관성	40 (100.0)	14 (35.0)	17 (42.5)	9 (22.0)
포장	39 (100.0)	19 (48.7)	12 (30.8)	8 (20.5)
납기	38 (100.0)	18 (47.4)	13 (34.2)	7 (18.4)
공급의 안정성	38 (100.0)	9 (23.7)	22 (57.9)	7 (18.4)

둘째, 신선도에 있어서는 경쟁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평가가 48.7%, 동수준이라는 평가가 38.5%에 이르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근접거리가 식품의 신선도 유지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나, 한국업체들이 집산지나 생산지에서 패키징, 냉동시켜 두었다가 가격이 오를때 수출하려고 저장하고 있어서 품질이 떨어지고 수출인지도가 낮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92년 82백만 달러에 달하던 송이버섯 대일수출은 '93년도에 전년비 2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일본 수입상들이 한국산 농산물의 거래를 매년 축소시키려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품질, 가격, 포장형태, 출하시기 조정 등 다각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셋째, 청결성에 있어서는 경쟁국 대비 양호하다는 평가가 46.2%, 동수준이라는 평가가 35.9%를 받고 있어 비교적 좋은 반응을 보이는 편이나, 특히 일본인들의 청결성 유지에 아주 민감하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넷째, 색깔, 품질의 일관성, 포장면에서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재배시나 수확후 포장시 등에 있어서 품질이 균등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수입상들은 한결같이 맛의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납기와 공급의 안정성 문제는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점을 적극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농산물이 대일 진출에 가장 취약한 요소로서 공급의 안정성 결여가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가지 면에서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서 일본시장 진출에 대한 호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바이어들의 요구조건(특히 수출단가)을 맞추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제주도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에 상응하는 가격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무공해 청정지역성” 등 차별적 이미지를 현지 시장에 집중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 第 V 章 濟州道の 對日 通商政策 發展方向

### 第 1 節 對日 農産物 通商交流 開拓擴大

#### 1. 대일 수출기구의 정비

지방정부 단위에서 통상교류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과 역할이 산발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각 수출기구의 조직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sup>74)</sup>

정부산하 수출기구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따라 수출업체의 수출업무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일본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수입선이 다양한 나라에서는 단지 시장정보만이 아니라 일본 국내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타국과의 교역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해서 그 결과를 신속하게 국내 수출업체나 지방정부에 전달함으로써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망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접 구입 판매에 의한 자체 수익사업을 지양하고 수출대행 업무 역시 지금과 같이 信用狀 대여에 의한 단순대행이나 위탁 판매가 아닌 수출대행업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수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현재는 국내 수출업자로 부터 수출의뢰를 받아 수출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시장정보 수집과 병행해서 수입업자와의 상담을 통한 수출선의 확보는 물론 국내 수출업자와의 연계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정부산하 수출기구의 상담을 통한 조직의 강화와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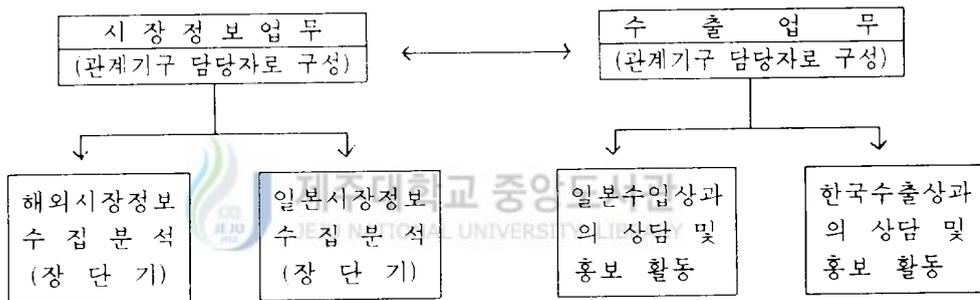
즉 현재 일본을 상대로 수출하는 상품의 성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기구의 성격상 수출업무를 달리하고 있는 기존 정부산하 수출기구의 과당경쟁을 막고 수출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다변화 되어 있는 수출기구를 하나의 통상교류지원 기구로 통합해서 시장정보와 수출업무를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로 조직의 개편과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74) 이종용, 「전계논문」, PP.2~7.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림 V-1>과 같이 기존 정부산하 수출기구 담당자가 동시에 모두 참여해 시장정보 및 수출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으로 기구개편은 물론 조직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정보 수집분석 부문과 수출업무 부문으로 크게 구분해서 시장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해외시장 동향분석은 물론 일본시장의 동향분석을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통상적 대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이것을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넘기면 수출업무 부서에서는 일본의 수입상과 한국의 수출상과의 연계 및 동시 상담을 통한 통상교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시장정보 부서에서는 일본시장의 장기적 동향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업무 부서에서는 수출입 상담은 물론 홍보활동도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sup>75)</sup>

[그림 V-1] 대일농산물 통상기구의 조직 및 기능



자료 : 이중용, 「일본의 농산물 시장조사연구」, 1994.

## 2. 시장정보수집 및 전달체계의 조직화

일본의 통상 및 유통조직망은 넓고 복잡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일본시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에 파견된 한국물산, 농협, 주일농무관, 도내 언론기관 특파원등의 적극적인 활용과 아울러 도민의 기업으로 출범한 (주)제주교역의 수출입 시장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전문화 해야한다.

75) 이중용, 「전세논문」, PP. 85~89.

전략 품목별 수출전문업체 육성과 제주교역 및 기존 수출업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제주도 산업경제국의 수출지원 업무를 통상협력실로 창구를 단일화하되 유통과, 축정과, 어업지도과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통상지원 업무들을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를 의장으로 하고 관련 생산자 단체, 독농가 대표들로 농수산물 수출촉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 해외 세일즈단을 조직운영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국제통상협력실내에 KOTRA,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통상 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투자 등 전문적 실무를 지원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군에서는 최소한 국제협력과를 두고 하부조직의 국제적 감각과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통상교류담당 전문인력을 계약 채용하든가, 공무원 충원시 시험과목에 주요 지역별 외국어를 강화하고 외국 장기체재자 및 통상전문가를 우선 채용하며 중장기 해외훈련이나 시도 공무원교육원의 외국어과정 또는 전문 어학 교육기관에의 위탁으로 어학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야 한다.

지방의 통상교류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통상관련 권역별 대도시에 국제(교역, 문화, 정보)센터의 건립과 함께 교역상담시설, 교육홍보시설, 종합정보집적시설(teleport) 등을 설치해서 일본의 각현(나고야, 후지산, 오오사카 등)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센터와의 통상교류 채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76)</sup>

### 3. 농산물 해외관측 및 홍보활동 강화

농산물의 해외시장에 공세적인 세일즈 관측활동으로 자신감있게 파고들어야 한다. 목표시장이 설정되고 나면 수출전략 단계별로 수출가능성 진단을 위한 시장조사단, 시험수출을 위한 수출시장 개척단, 기존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파견해 나가야 한다. 이와 아울러 수출전문업체, 전문

76) 제주도, 「제주도의 비전과 전략」, 1995, PP.5~7.

생산농가, 기술지도요원, 수출정책담당자 등으로 개척단을 구성하여 주요 공략 목표 시장에서 현지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한다.

수출농업단지 전문생산농가 및 기술지도 요원으로 구성된 생산기술연수단을 주요농업선진국에 파견하여 2~3개월씩 현지농장 체재경험을 통한 규격품생산, 포장기술 등의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소비시장의 기호와 성향에 맞는 수출유망 상품의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품목별 특성에 맞는 수출품목 및 수출가능 품목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포장실태 조사시행 및 포장디자인 연구개발을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외농산물 박람회의 참가는 단기간의 전시상담을 통해 최대의 홍보효과와 계약 수출선 확보의 이점을 실현시킬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참가 횟수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해외수출거점 확보 및 수출전진 기지로서 수출대상국의 주요 권역별 수출전시관을 설치 확대해서 신규개발 품목의 시장개척, 수출상담, 중개, 알선, 수출정보수집, 상품 전시 및 홍보, 박람회 참가지원 등의 입체적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국내의 주요 수출지역에서는 우리 농산물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전시, 시식, 판매 홍보의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해야한다.

감귤, 김치, 채소류 등 전략수출 품목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 유명 해외 전문지를 통한 광고추진, 지하철 등 주요 가시권내 벽면광고, 옥외전자 광고관 등의 활용을 추진하면서 종합소개 책자를 다용도로 발간, 국내외 관련업계에 충분히 배포해 놓아야 할 것이다.

무릇 “광고가 주요한 투자선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관측 홍보활동 투자에 결코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공공기관의 홍보비 예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어서 시민에게 투자수혜 효과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예산투자에 상당히 인색한 실정이다.<sup>77)</sup>

77) Kennedy, C. and A.P. Thirlwall, "The Input-output, Formation of the Foreign Trade Multiplier". *Australian Economics Papers* June 1997, PP.150.

#### 4. 재일교포의 협력 및 활용

우리는 현재 65만명의 재일교포가 있어 우리 기업들이 일본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느 국가에 비교해도 유리한 점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중국계 국가들이 동남아 및 북미지역에 진출하는데 있어 현지 화교들을 고객 및 협력 업체로서 적극 활용했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기업도 일본시장 진출에 있어 이에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재일교포들이 비제조업 관련 서비스산업에 상당히 진출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일교포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현지시장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일본에서 창업하는 것보다 재일교포 사업인들을 해외수출 시장의 중요한 창구로 협력 활용할 가치가 대단히 높다.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간에 상당한 불신이 있어 협력관계 개발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일교포가 그들의 애국심과 언어 및 문화적 지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순수 일본계 기업보다 우리 기업과의 협력관계 개발에도 유리하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이 재일 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sup>78)</sup>

〈표 V-1〉 재일교포 활용방안

유 형	활 용 방 안
마케팅 활동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조사 및 자문서비스와 중개역할</li> <li>• 재일교포 대상 창업교실 개최</li> <li>• 재일교포 국내 산업시찰단 구성</li> </ul>
제품 및 농산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제품, 특히 산업재의 구매</li> <li>• 한국제품의 유통</li> <li>• 한국 및 재일교포 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li> <li>• 재일교포 실업가와 對日輸出業體間의 민간협의회 구성</li> </ul>
기술협력 및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기업과의 기술협력</li> <li>• 기술계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설립</li> </ul>

78) 제주도, 「제주도 특산품 일본시장동향: 일본 농수산물 시장조사 보고」, 1995. 7, PP. 15~17.

## 第2節 對日農産物 通商構造의 調整

### 1. 산업구조의 수평분화적 추진

전통적인 무역이론에 의하면,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해서 이의 생산물을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의 생산물은 수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산업간 무역은 각국간의 산업구조가 상호 수직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일차산품의 수출에 특화하는 국가는 공업제품을 전면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식민지형 무역패턴을 가지는 수직적 분업의 형태를 지닌다.

그렇지만 무역은 산업간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산업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이 국제간에 상호 거래되는, 소위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경제현상이기 때문이다.<sup>79)</sup>

일반적으로 산업간의 무역특화는 국가간에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보완성을 갖게 되는 것이지만, Balassa 등이 EC의 무역구조를 분석하여 밝힌 견해에 따르면, 무역(통상) 구조를 자유화 할 경우, 비교 우위적 구조가 평준화되고 안정되는 수평무역의 발전적 형태로 이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교우위 구조를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에 비해, 어패류를 비롯한 일차산품과 의류, 신발류, 여행도구 등은 비교우위에 있지만, 일반기계, 전기기기 및 수송기기, 정밀기계 등 중화학 제품에 있어서는 여전히 비교열위에 있다. 요컨대 한국과 일본의 비교우위 구조는 동일 산업내의 평준화형 비교우위 구조(Levelled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산업간의 특별한 비교우위 구조(Specialized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인 것이다.

79) Balassa, Grubel, Vrdoorn, Willmore 등에 따르면, Heckscher-ohlin-Samuelson 모델에서 양국간 교역이 독일의 자동차나 프랑스의 포도주와 같이 양국의 다른 산업간 (inter industry)에 행해지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독일의 자동차와 프랑스의 자동차 또는 독일의 포도주와 프랑스의 포도주와 같이 동일 산업내에 있는 상품끼리도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와같이 동일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원경, 생산시점과 소비시점의 상이에 따른 수송비, 저장비 부담등의 차이, 규모의 경제로 인한 생산비용의 차이, 제품의 차별화 등을 들고 있다. Grubel Herbert, G. 『International Economics Homewood III』, Richard D Irwin, 1981.

이와 같은 사실에서 볼 때, 한국의 대일무역 불균형 구조가 전산업에 파생적으로 누적되어 온 것이다.

농수산물 등 1차산업 분야 내에서만 보더라도 가공도가 낮고 노동집약적인 상품과 기능도가 낮은 상품은 수출되고 상품 경쟁성이 높거나 고부가가치성인 상품은 수출경쟁에서 항상 뒤떨어져 왔다는 점을 깊이 분석하여, 산업구조의 수평분화적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통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의 제고

일본의 소비자들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품질과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기호 성향도 점차로 다양화·고급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일수출은 1988년 전 후에는 엔고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제고로 급속한 확대 추세를 보이다가, 1989년 이후 1990년대 초까지는 국내 대금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의 약화와 제품의 품질제고 미비, A/S시스템의 불비로 일본 소비자의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오히려 고임금국이 되어버렸다. 또한 일본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상품의 유통 마무리가 나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품질유통관리 및 점검체계가 정착되어야 하고 납기 준수와 크레임 발생률 제로화, 자가 브랜드개발, 선진화된 마케팅 활동등 비가격 경쟁력에 대한 배려를 통한 신뢰도 회복 및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크다 해도 상품관리에서의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면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없게 된다.<sup>80)</sup>

80) 강정모, 「대일무역역조 시정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PP. 69~70.

### 3. 대일수출 마케팅 활동의 강화

수출의 기본적인 역할은 외화획득과 부를 증진시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의 한 방법은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시장내 상관습을 이해하고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유능한 세일즈맨을 육성하며, 세일즈 활동도 전국무대를 대상으로 광역화시킨다.

둘째, 일본에서 수출입 및 국내 판매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한국상품을 수입해 직접 유통구조에 침투, 판매하며 동시에 거래알선, 시장조사 업무도 담당하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시장 내에서의 구매력 세분화는 시장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농산물 진입에 맞추어 그 기회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후, 제품·촉진·가격·유통의 마케팅믹스를 잘 이용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넷째, 일본내 통상 마케팅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여 무역회사의 현지금융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공급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지 무역회사 지사의 판매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대일진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사운용을 강화해야 한다.<sup>81)</sup>

마지막으로 일본 현지에서의 마케팅 기술이 축적되고 한국상품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늘어나 시장개발의 가능성이 커진다면 국내(지방정부) 유통업체 스스로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국기업이 단독으로 일본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설치하거나 한일합작으로 일본 유통업계에 진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내기업이 단독으로 일본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일본의 복잡하고 배타적인 유통구조의 단계를 축소하여 일본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의 재일교포 재벌의 기반을 활용하는 방안도 별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81) 박주석, 「대일무역 역조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1991, PP. 61~62.

### 第3節 對日 農産物 通商障壁의 解決

#### 1.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제거

관세제도는 그 나라의 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나 관세 대상국에 대한 형평문제는 국가간 교섭에 의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일본의 우리나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는 미국이나 EC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다. 특히, 아몬드와 같이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3% 적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농수산 가공품은 무려 16~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GSP제도가 한도액등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관세인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위한 교섭이 요망된다.

결국 이와같은 일본의 국별 차별관세는 국가간의 관세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로 풀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본에 대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를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하며, 이 문제를 단순히 농업 내부분제로만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농산분야의 수입품과 연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즉, 농림수산부는 비농업 부문의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비농업부문의 수입품에 대한 수입 관세제도와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일본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보면 일본은 시장개방을 통해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약속하고 있으나 이미 단행된 관세인하 및 철폐조치가 우리나라에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의 실익 또한 의심스럽다. 따라서 일본의 비관세장벽 특히 눈에 보이는 수입허가제, 수입할당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검사제도, 특별법에 의한 제한 행정지도, 일상의 상관행 등을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려내어 통상외교적인 측면에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sup>82)</sup>

82) 장진중, 「대일무역 역조요인의 분석과 시정책」,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1988, PP. 68~69.

## 2. 수출 농산물의 검역 충실화와 절차 간소화

일본의 수입 농산물 검역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의 대다수가 소독 후에 통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나라의 수출농산물 중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는 신선야채나 화훼류의 경우 대부분 훈증소독을 하고 있어 상품의 신선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식물검역 강화는 자국의 농산보호를 위해 취하는 하나의 수입규제 수단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다고만 말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경우 선상의 청결상태가 불량해 선상오염이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흙까지 부착된 사례가 있어 선별 또는 제조과정의 관리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컨테이너로 반입하는 농산물도 운임비를 줄이기 위해 빈틈없이 꽉 채워서 가기 때문에 중간의 물건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하역할 수밖에 없으며, 병해충의 발견시 분리소독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의 경우 수출을 위한 생산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무병충해의 농산물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자 농민의 인식 부족으로 수출상품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빚어진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수출 농산물의 검역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 상품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생산자 농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수출상품에 대한 검역도 충실하고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수입국의 검역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검역소의 인력 확충은 물론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시설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우리나라 검역소의 장비와 인력은 크게 부족한데 반해서 수출입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출업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신선야채나 과실류의 수출은 수입국의 기상 여건에 따라 물량이 폭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이를 단시간에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검역의 충실화와 신속화 또는 검역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검역시설의 확대 설치는 물론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인력의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공항이나 항만에 GAS인증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소독처리에 따른 시간 단축은 물론 수출 농산물의 일시소독에 의한 품질 저하 방지와 비용 절감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우리나라 검역소의 검역 장비나 검역절차를 최소한 국제 식물보호협약 취지에 맞는 수준으로 검역시설을 정비해야 하겠다. 만약 이들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검역소를 공적 검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강력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간의 신뢰성 문제가 뒤따라야 함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지정이나 하자 발생시의 처리절차 등 상호 조약에 의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수출국 등록공장제도를 도입, 59개의 등록공장 희망업체와 150개 품목의 희망 품목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일본 정부의 이렇다할 반응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검역제도를 수입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명확하므로 정부는 이 문제 역시 강력히 촉구. 비관세장벽에 의한 수입규제를 완화해 나가야 하겠다.

## 第 4 節 農水産物 輸出 流通體系의 改善 運營

### 1. 物流費用의 低減對策 講究

장기적으로 통상교류 기반을 확대하는 길은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외국의 농수산물 바이어들은 일시적인 가격 하락으로 인한 단기시세 차이도 중시하지만 물량의 지속적인 공급가능 여부를 우선시 하고 있다.

우리 농수산물 수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가 바로 다름아닌 통상교류 여

력의 부족이다. 현재 일본은 매년 농수산물 수입자격 요건을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규정하는 품목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입 대상국의 국내수요와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선이 차단되어버리는 현상을 막고 안정적 통상 교류선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이에 대비해서 수출 목적의 전문 생산단지를 지정하여 수출계약 재배를 정착시키고 유리온실, 관배수시설 등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집하장, 선별처리장, 냉동저장 시설 등 산지유통 시설 분야를 현대화, 자동화 하여 국제수준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sup>83)</sup>

지방정부는 수출을 열심히 하는 우수단지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 등의 수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재배경영기술, 검역검사 등의 위생조건과 포장디자인에 있어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수출지향 경영 합리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의 부수시설 확충, 저장창고 시설의 현대화, 대형 집배송 단지의 건립 등의 사업을 유통 현대화 정책과 연계시켜서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전문용역을 거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물류시설 확충, 중소기업조직화, 유통정보망 확충, 유통우회도 향상 등을 위한 유통 현대화 재정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자금의 지원대상에 유통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주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내에 유통시장개방 관련 정보상담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유통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제주대학내에 유통전문학과 설치 등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통 여건에 있어서도 해외유통에 적합하도록 ① 산지에서 모든 생산물의 선별포장·예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② 장거리 수송에 적합하도록 수송의 규격화(팔레트화, 컨테이너화)와 저온 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장거리 수송에도 유통중 품질의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③ 엄격한 등급 및 포장규격과 최첨단으로 발달된 전국적 통신망, Fax, 컴퓨터 통신망 등을 바탕으로 통신거래, 전산거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미국

83) 제주도 지방공무원교육원, 「무역운송실무」, 1995, PP. 17~20.

의 경우 국내 생산 무우의 96.3%를 산지집하장(shopping point operation)에서 직접 전국의 거래자와 통신망이나 Fax에 의해 거래함으로써 상품을 보지 않고 거래한 후 물건을 수송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신중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지 집하장은 청과물의 집하는 물론 세척, 포장, 예냉, 저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대도시 도매시장과의 거래와 수송이 이루어지는 산지시장의 핵심적 유통시설이다.

또한 미국 농산물 유통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선주문 후생산계약(marketing order and agreement)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생산물의 유통량 조정, 컨테이너의 표준화, 시장개척, 공정거래의 확립, 시장정보의 수집 등을 위한 생산자와 산지 집하장 업자간의 협력계약으로 농무성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협동조합과 달리 마케팅 오더는 일단 성립되면 강제성을 가지며, 질서있는 유통(orderly marketing)을 위해 공동저장, 시장별 출하량 배정, 관측 및 연구 활동을 한다.

감귤 등 농수산물의 유통마진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중간 수집상 중심의 출하체계를 줄이고 현재 40% 정도밖에 안되는 계통처리 확대 방안을 강력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검사제, 표준규격화, 원산지 표시제(시군단위까지), 품질인증 및 등록제, 생산쿼터제 등의 제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항만 하역 시스템의 현대화, 자동화는 물론 하역료, 운송료의 절감을 통한 물류 비용의 저감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sup>84)</sup>

## 2. 流通體系의 改善補完

### 1) 산지단계

산지단계 유통의 과제가 조직화와 규모화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지만, 어떤

84) 유통마진은 유통비용과 유통중보자 이윤으로 구성되며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쉽게 부패변질되어 수송비, 보관비, 감모비 등 물적 유통비용이 상당히 높아 농가수취 가격이 낮게 나타난다.

방식으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조직 내지는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고, 규격 표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가 문제이고 청과물종합처리장, 소포장센터, 간이집하장 등을 활용하여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연간 10% 미만의 가동율을 유지하는 유통시설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방식의 산지 유통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식은 자칫 투자효율의 저하는 물론 농·감협 부실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장차 있을 지역농협 간의 합병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본다.

읍면단위의 지역농협이나 시·군을 초월하여 한개의 주산단지 혹은 몇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산지종합처리장이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별 간이집하장으로부터 집하·수집기능, 선별기능, 포장 결속기능, 예냉기능, 냉장·저장기능, 소포장기능, 출하기능, 종합정보제공기능, 마케팅기능, 영농지도기능 외에 필요하다면 가공시설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과 계약재배도 이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영형태에 있어서는 회사법인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초기의 시설투자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정 비율로 부담토록 하고, 광역 집출하 시설과 연계된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되 경영인은 전문경영 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영입하여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초기단계에는 산지수집상이 수집한 물건까지를 취급함으로써 물류 흐름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시설의 위치는 도시의 물류센터, 도매시장과의 연계성을 감안하고 주산단지, 생산분포 및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농촌지도소, 시·군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체제의 구축은 말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 2) 소비자단계

소비자단계의 유통중계 기능의 핵심은 공영 도매시장이다. 물류센터는 도매시

장의 견제기능, 보완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공영 도매시장의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장의 관리운영을 제3섹터 방식에 의해 설립된 시장 관리공사가 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도매 시장중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공영도매 시장내의 도·소매기능의 명확한 분리와 시장내 운송의 기계화, 시장사용 면적대비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의 추진도 있어야 할 것이며 시장출입구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경매개시 이전에라도 반입물량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가격형성 여건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전국 공영 도매시장간, 산지광역 집출하 시설이나 출하주체에 대한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수규격 출하주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물류센터는 하드웨어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다. 물류센터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센터 운영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일 것이다. 산지쪽과 가맹점을 치밀하게 연결하여 유통마진을 축소하고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의 뛰어난 전문인력 확보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던 자회사가 운영하던 물류센터에 기업의 경영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그러기 위해 농산물 유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동시에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대는 소위 One-Stop 쇼핑 시대이기 때문이다.

### 3)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응방안

WTO 체제가 진전되어가면 식품방역법의 몇몇 규제조항이나 원산지표시강화 등에 의해서 수입농산물의 수입이나 유통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안정성, 신선도 등을 강조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한 유기농산물의 보급확대 및 고품질 우수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농업이나 농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30~40대 이상의 세대가 물러난 후에도 신토불이 등에 의한 값싼 해외농산물의 수입저지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도시와 주산단지와의 유기농산물의 계약재배 등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4) 생산자 단체의 역할 및 과제

흔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생산자단체로서 농협의 역할은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경제사업은 소홀히 했다는 비난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마치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신용사업을 통해 과거 농촌에 단연했던 고리채가 없어진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1,417개의 회원조합과 7만여명의 조직력을 갖춘 농협을 제외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영세한 소농구조, 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현재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산자 단체가 경제사업을 통하여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광역집출하 시설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엄청난 구매력을 활용한 구매사업과 판매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등을 통하여 농산물 유통분야에 있어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각종 사업에 사기업에 버금가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sup>85)</sup>

### 第5節 對日輸出 農産物의 差別的 認知度 提高

지금까지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주문자 상표 부착수출”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방식에 의한 수출 중심이어서 국제 하청식의 종속적 마케팅에 의존하여 일본 상품과의 가격 및 품질상 차별화가 어려워 독자적 시장 개척 수단이 미흡하고, 자가 브랜드 수출도 위축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일본 소비시장의 수요를 감안한 기호도와 소비패턴, 감각 및 이해를 높여서

85) 박희정, 「전계논문」, PP. 25~30.

보다 소비자 밀착형 상품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일본인들의 감각은 스스로가 세계 제일의 상품개발에 성공한 자부심과 최고의 상품만을 추구하는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서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제주도산 상품의 신뢰를 심도있게 심어 나간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본다.

제주도의 “청정 무공해 지역특성”을 강도높게 부각시켜서 상품의 차별적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심어나가면서 고유의 Brand를 개발해서 일본인들의 가슴 깊숙히 파고드는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sup>86)</sup>

외국인의 기호에 적합한 수출용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동경시민들보다 오사카 시민들은 더 짜고 매운 음식을 선호한다는 식성을 감안해야 하고 현대인의 취향에 맞도록 편의식 형태의 간편식화(호박죽, 양배추 Soup, 삼계탕)와 주스화(식혜, 밀감, 영지버섯, 매실) 등 인스턴트 요리들을 가공 개발해 나가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야 한다. 신상품 개발에는 포장디자인의 국제화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수출협회, 제주대학교 미술과(산업디자인) 등과 협력하여 제주도의 향토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 색채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 농산물은 맛, 신선도, 청결성, 색깔 등 그 자체의 특성은 여타 경쟁국들에 비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품질의 일관성, 포장, 납기, 공급의 안정성 등 농산물 재배, 가공, 유통처리가 비교적 취약한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공산품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의 대일수출 농산물 수입상이든 제3국으로만 수입하고 있는 수입상이든 우리의 농산물 가격이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 보다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농업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야채 등의

86) 제주도, 「일본시장에서의 한국농산물 인식도 및 수출기반조사」, 1994. PP.10~15.

기존 국내 생산을 점차 축소하는 대신 부족분을 수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야채류 개발 등을 추진하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만이 돼지고기 한개 품목에 대해 대일수출 실적('93)이 11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 육지부에서 일본의 밤수입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일본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입시장인 데다가 24시간 안에 일본 전국에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대만업체들은 일본의 월간 일기예보 등을 보아가며 국내 경작상황을 예상, 야채류 등의 출하시기를 결정할 정도로 일본시장 개척에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실정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같은 점에서 우리업체들도 일본의 농산물 시장동향은 물론 검역기준 등 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내 농산물 박람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등 제반 마케팅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산 등이 저가제품을 중심으로 일본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맛, 향기, 크기, 색상, 포장 등 품질 경쟁력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케팅 측면에서 차별화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대일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수집과 저장 및 포장, 수송 등에 이르기까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일 농산물 수출의 현지 기반확충을 위해 종합 상사를 비롯, 농산물을 취급하는 재일 한국지사사의 수준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 第Ⅵ章 要約 및 結論

UR협상이 타결되고 1995년 부터 WTO체제가 출범하게 됨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농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출농업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농수산업은 식량안보 및 환경보존 차원에서 시장개방 앞에 종전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실정에 직면하였으며, 개방의 충격을 극복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 주도형 농수산물 체제로 과감히 전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국제경쟁에 뛰어들어 통상교류 정책을 수행해 나갈수 있는 전문능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사실상 양대 수레바퀴와 같이 맞물려 있는 개념이며 지방정부가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주민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지역문제를 지역수준에서만 머물지 말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지역주민 스스로 세계화·개방화의 세찬 물결을 헤치고 스스로 세계의 도시민을 상대로 대응태세를 길러 나가야만 한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국제통상교류의 의의와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바람직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 논의의 배경, 개념정립, 국제화·세계화와 지방의 통상교류 관계를 통한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WTO 출범에 따른 농산물 통상교류의 당위성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상교류의 실태와 제주도 지방정부의 통상교류 실태를 비교·분석한 후, 타시도의 사례와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앞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비교 행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4장에서는 地方政府의 通商交流에 대한 문제점을 제주도적인 상황에서 도출하

었다.

제주도는 가구당 농가소득('94)이 22,172천원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농가 소득이 높은 지역이며, 특히,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비중 역시 지역총생산(GRP)의 32% (전국은 10.9%)로서 농업의존도가 아주 높은 지역이다.

또한 연간 농산물을 613억불씩이나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시장인 일본 열도와 지정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일본시장을 겨냥한 농산물 통상교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당위성이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 농산물이 대일본 시장을 겨냥해서 통상교류를 전개해 나갈 경우의 당면한 문제점을 현실에 입각해서 행정실무 중심으로 도출하였다.

첫째로, 수출시장 개척상의 중요한 애로와 한계점으로서 대일 수출 기구와 조직의 비합리성, 시장정보 수집 및 전달체계의 비조직화 문제, 그리고 해외상품 홍보 수준의 열악성 등을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둘째로, 수출구조적 요인상의 문제점으로 수출상품 구조의 취약성, 가격과 비가격 경쟁력의 약점 및 대일 마케팅 활동의 부족을 들었다.

셋째는, 대일 농산물 통상장벽의 문제로 관세장벽과 수입절차에 의한 규제실태를 현실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로, 제주도는 연륙교통상 여러가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류수송체제와 유통비용의 과다로 인한 가격 경쟁력의 취약성을 문제점으로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산 농산물은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어 안전성, 맛, 색깔, 신선도 등 여러가지면에서 세계적으로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외시장 (특히, 일본시장)에서 그 무한한 잠재성에 대한 차별적 인지도를 부각시켜 나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술한 제주도 지방정부의 통상교류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전략으로는

첫째, 대일농산물 통상교류 시장의 확대 개척 방안으로 대일 수출 기구의 정비

그리고 시장정보 수집 및 전달체계의 조직화와 함께 농산물 해외관측 및 홍보 수준의 고급화·다양화·정예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로, 대일 농산물 통상구조의 조정방안으로서, 산업구조의 수평분화적 추진방안과 가격, 비가격 경쟁력의 제고 및 대일 통상 마케팅 활동의 강화 대책을 연구하였다.

셋째로, 대일 농산물 통상장벽의 해결문제는 현행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문제점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측면에서 수행 (제도 개선 건의 등) 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일 통상교류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체계의 개선에 대한 대안과 대일 수출 농산물이 해외에서의 차별적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연구 제시 하였다.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외국과의 교류는 자매결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교류 중심에서 앞으로는 경제를 중심에 두는 통상교류 위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방단위에서 무역과 외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선결 과제들이 앞으로 집중 연구의 대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자치단체들의 경제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수출입 문제를 중심으로 한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가 활발히 전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통상교류 주체 또는 유형상으로 여러가지의 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

통상교류외에도 문화적 교류, 인적교류, 학술적교류, 지방정치·행정적 교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의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적인 상황에서만 보더라도 더욱더 해외통상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세가 약하고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여 도민의 세금에 의한 재정확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민의 지혜와 의식구조의 선진화를 발판으로 세계경영

의 무대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1차산업 의존도와 그 비중이 월등히 높은 제주도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 경쟁력 강화의 궁극적 목표를 수출농업에 두고 전략과 시책을 부단하게 개발해 나가야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중의 하나는 농업생산물 수출과 병행하여 농업기술, 기자재, 농업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도 수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발전은 관련기술 및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WTO 체제하에서 모든 산업이 개방되고 특히, OECD 가입시에는 선진국들과의 농업기술 협력과 기술용역 부문의 통상교류 확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국 내 문 헌

#### 가. 단 행 본

- 공보처, 「세계화 관련 각계 의견집 (신문스크랩북)」, 1995. 4.
- 권오복·최세균, 「세계농산물교역 질서변화와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 - FAO) 한국협회, 「급증하는 농산물수입과 일본 농업의 대응」, 1992.
- 국제화추진위원회, 「국제화의 개념 및 추진기본방향」, 1994.
- 김동일, 「지방의 세계화와 공동체 의식의 회복」, 공보처, 1995.
- 김석준외, 「세계화 지표」, 이화여자대학교, 1995.
- 김석준, 「한국의 세계화 비전」, 공보처, 1995.
- 김수근, 「지방화와 세계화」, 공보처, 1995.
- 김익식,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4.
- 내무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무행정 주요시책」, 1994. 7.
- \_\_\_\_\_, 「국제전시회·박람회 참가계획」, 1995.
- \_\_\_\_\_, 「세계화를 위한 지방행정의 방향과 과제」, 1995. 2.
-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일본의 지방행정 기획사례」, 1989.
- 노화준·송희준,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서울;나남, 1994.
- 농림수산부, 「한국농정 반세기」, 1995.
-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1995. 3.
-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 「농림수산물 품목별 수출촉진대책」, 1992.
- \_\_\_\_\_, 「수입농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1992.
- \_\_\_\_\_, 「국별 농업통상 자료」, 1994. 7.

- 농수산물유통공사, 「군별 특화품목의 수출상품화 개발사업 계획」, 1995.
- \_\_\_\_\_, 「농수산물 무역정보」, 통권 제78호, 1995. 4.
- \_\_\_\_\_, 「농업선진국의 수출정보 지원제도」, 1994.
- \_\_\_\_\_, 「대일 농수산물 수출핸드북」, 1995.
- \_\_\_\_\_, 「일본의 주요 농수산물 수입현황」, 1993. 4.
- \_\_\_\_\_, 「해외농산물 시장속보」, 제130호, 1995년, 9월호.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유통교육실시 결과보고서」, 1995.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분석」, 1994.
- 대한무역진흥공사, 「WTO 일본통상정보」, 1995년, 3월호.
- \_\_\_\_\_, 「WTO 편람」, 1995.
- \_\_\_\_\_, 「주요국의 식물검역 제도」, 1992.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지방행정」, 1995년, 1월호.
- 문정인외, 「제주교육의 세계화」, 제주도교육청, 1995.
- 松下圭 一著, 김진호 역, 「일본도시들의 국제정책과 행정」, 제주: 제주문화, 1988.
- 이명근, 「UR 이후 미국의 농산물 수출정책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4.
- 외무부, 「세계무역기구협정 비준 동의안 국회심의 관련자료집」, 1994. 12.
- 조문부외, 「지방자치와 제주도」, 제주: 동양산업사, 1990.
- 재정경제원, 「UR 협상타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1994.
- \_\_\_\_\_,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 1993.
- 제주대학교 농업발전연구소, 「제주의 농업과 경제」, 통권 제3호, 1995. 3.
-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화시대의 제주농업의 발전방향」, 1994.
- 제주도, 「감귤특작 기본현황」, 1995.
- \_\_\_\_\_,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계획」, 1995.
- \_\_\_\_\_, 「농림수산물 수출입 동향」, 1994. 4.
- \_\_\_\_\_, 「농수산물 수출계획과 해외시장동향」, 1994.

- \_\_\_\_\_ , 「제주도 농수산통계」, 1994.
- \_\_\_\_\_ , 「농·수·축산물 수출종합계획」, 1995.
- \_\_\_\_\_ , 「도정백서」, 1995.
- \_\_\_\_\_ , 「도정현황」, 1995.
- \_\_\_\_\_ , 「제주도정」, 1994.
- \_\_\_\_\_ , 「제주도의 비전과 전략」, 1995.
- \_\_\_\_\_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1993.
- \_\_\_\_\_ , 「일본시장에서의 한국농산물 인식도 및 수출기반조사」, 1994. 5.
- \_\_\_\_\_ , 「제주도 특산품 일본시장 동향: 일본 농수산물 시장조사보고」, 1995. 7.
- 제주도,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우리의 노력」, 1994.
-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무역운송실무」, 교육교재, 1995.
- \_\_\_\_\_ , 「통상실무」, 교육교재, 1995.
- \_\_\_\_\_ , 「무역운송실무」, 교육교재, 1995.
- \_\_\_\_\_ , 「통상실무」, 교육교재, 1995.
- 지방자치경영협회, 「자치경영」, 통권 제11~12호, 1995.
- 지방행정연구소, 「자치행정」, 1995년, 9월호.
- 최정섭외, 「일본·미국의 농업투융자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 총무처, 「해외무역관 특별순회연수 보고서」, 1991. 7.
- 통계청, 「한국경제지표」, 1990.
- 한국관광공사, 「자치단체 국제교류」, 1995. 5.
- \_\_\_\_\_ , 「한국 및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보고서」, 1992. 12.
- 한국국제교류재단, 「재단소식」, 제2권 제4호, 1994. 5.
- \_\_\_\_\_ , 「경제·통상교류실무요령」, 1994.
- \_\_\_\_\_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방향과 과제」, 1994.
- 한국은행, 「외국전문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영향과 대책(제주지역)」, 1995.

한국은행, 「제주지역경제 전망과 과제」, 1995.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995년, 10월호.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0년」, 통권 제13권 제148호, 1995. 8.

## 나. 논 문

강정모, “대일무역역조 시정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1992.

강지용, “제주도 농업의 문제와 전망”, 「아라논총」, 제3집,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고충석, “문민정부와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혁과제”, 「제주도 지방의정」, 제주도 지방의정 연구소, 1993.

권영수,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실태와 한국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방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1993.

권오복·최세균, “세계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김경택, “개방화시대의 제주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제주: 국제화·개방화의 시대를 맞는 제주경제의 대응 세미나 주제발표 논문), 제주상공회의소, 1994. 7. 29.

김선기, “지방자치단체의 통상교류과제와 추진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김성용외, “UR협상 타결이후 농산물 수출지원에 관한 연구”, 대한무역진흥공사, 1992.

김성준, “지역개발행정의 민·관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사례를 통한 행정관리 전략”,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95.

김홍식, “지방행정에서의 정책평가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 농수산물유통공사, “WTO출범에 따른 수출확대 방안”, (서울: KOEX 세미나발표 자료), 1994. 11. 16.
- 대구직할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증대 방안: 대구직할시를 중심으로”, (수원: 제32회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 논문),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1994. 10.
- 박성관, “한일무역 불균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1994.
- 박주석, “대일무역 역조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91.
- 박희정, “지방산업구조 개편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 부만근, “제주도 개발행정의 평가와 과제”, 「제대학보」, 제26집, 1986. 2.
- \_\_\_\_\_, “제주지역 개발과 정책결정 양상: 제주의 미래를 위한 구상”, 「제주도」, 통권 제84호, 1988.
- \_\_\_\_\_, “지방화시대의 지역개발 방향”, 「아라논총」, 제3집,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2.
- 서경림, “제주도내 특수자원의 개발과 활용방안 (공동)”,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1986.
- 양영철, “내생적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1990.
- \_\_\_\_\_,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아라논총」, 제2집,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2.
- \_\_\_\_\_, “지역개발과 지역계획”, 「아라논총」, 제3집,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4. 2.
- 이은재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0.
- 이중웅, “일본의 농산물시장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2.
- 정명채·최경환, “농촌사회정책의 방향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 장진중, “대일무역역조요인의분석과시정책”, 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1988.

- 정재근, “시도 국제통상협력실 현황 및 발전방향”, 「자치단체국제교류」 (한국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 1995.
- 제주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제주지역 주요채소 및 화훼류의 유통구조 개선방안 연구”, (산학협동연구논문), 1991.
-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연구소, “UR 이후 제주농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주: 제4회 한일농업과학세미나 발표 논문), 1994. 12.
- 제주도, “주민만족 서비스 제고 대책”, (수원: 제33회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 논문),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1995. 8.
- \_\_\_\_\_,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증대방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수원: 제32회 지방행정연수대회 발표논문),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1994. 10.
- 조문부, “세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방향과 도민의 대응자세” (제주: 세계화를 위한 토론회 주제 발표),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1994. 12.
- 최창호, “국제화·지방화시대” (서울: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4. 12. 3.
- 한삼인, “그린라운드의 개막과 그 대응방안”, 「아라논총」, 제2집,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1993. 2.
- 해운산업연구원, “국내 화물의 팔레트·컨테이너화를 통한 일관수송체제 구축방안”, 교통부 용역보고서, 1995.

## 2. 외 국 문 헌

### 가. 단 행 본

- 鈴木俊一,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日本國自治體國際化協會, 1993. 9.
- 五十嵐 富英, 「地域活性化の發想」, 東京: 學陽書房, 1992.
- 伊藤善市, 「自治體の國際化政策と地域活性化」, 東京: 學陽書房, 1994.
- 地方自治政策研究會, 「國際交流ガイドブック」, 東京: ぎょうせい, 1985. 5.
- 地引嘉博, 「地域國際化のすすめ」, 東京: ぎょうせい, 1984. 6.

- Loc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reau, *List of Twinings*, 1994.
- Raymond Vernon, *Sovereignty at Bay*, New York ; Basic Books, 1971.
- Chung-in Mo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ird World Bilateralism* College Park, DMV ; University of Maryland, 1984.
- William J. Pammer, Jr, *The Future of Municipal Finance in an Era of Fiscal Austerity and Economy Globalization* Municifal Year Book, 1992.
- Peter, Dickson, *Global Shift ; 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NY ; Guilford Press, 1992.
- W · B · Stoffer, *State and Local Politics*, NY ; Haper Collins Publishers, 1991.
- Paul Brace, *State Government and Economic Performance*, Baltimore, The Johne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3.
- Balassa. B. *Tariff Reductions and Trade in Manufactures among the Industrial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1966.
- An O · Bowman and R · C · Kearney, *State and Local Government*, Boston ; Houghton Mifflin, 1993.
- 나 논 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日本國 總務廳官房企劃課, “地方における國際交流の現狀と課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地方問題研究, 1991. 6.
- 日本國 總合研究開發機構, “地域からの國際交流のあり方の研究：大阪型國際交流をめざして”, 東京：佐藤印刷, 1983. 10.
- Kennedy. C. and A · P. Thirlwall, “The Input - Output Formation of the Foreign Trade Multiplier”, *Australian Economic Papers* June 1979.
- F · S · Berry, “City Services in Mid - Sized American Cities ; Developing a Satisfied Constituency”, *Paper on Seminar for Improving Cheju City Council's Ability*, 1995.

A Study on the Trade Policy of Local Governments  
- Focusing Agricultural Product Trade  
between Cheju and Japan -

**Kang, Kwan - Bo**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 - CHEAL )*

ABSTRACT

The world is undergoing many changes but the most significant one is the trend towards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All around the globe, local governments are becoming more active and more dynamic actors in the process of domestic governance.

In all this,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local authorities has become even more apparent. The policy "thinking globally and acting locally" can be the successful method in the global a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great transformations are taking place on the basis of new order.

As the important strategy for survival in the global age - in the age of

---

'openness'. local governments put spurs to globalization endeavors such as foreign market development through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rade cooperation.

Local governments, once attached to the central government, tried to direct the stream of globalization to their share of the regions.

As the Uruguay Round had been settled in Marrakesh, Morocco at April. 15th. 1994. GATT, the world trade system since the 2nd world war, ended, and WTO, the trade system in new competitive cooperation era, was launched from Jan. 1st. 1995.

Agricultural products, exceptions to Free Trade, have been applied to WTO trade rules under the UR agreement and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comes to face new challenges of fair and open competition in 'Borderless Economy'.



The Cheju area especially depends on the First Industries for its livelihood.

To the present, international trade policy has been the burden of central government while local governments have had a 'hands off' attitude but now the trade policy of local governments has become a major task of all local policies.

Local governments must trade with other countries immediately and not by way of the central government. "Globalization" or

“internationalization” of a region can be accomplished by a sound regional economy but the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solid to pursue the welfare, safety, liberty and property of inhabitants.

At present, local governments have made various efforts such as dispatching export promotion missions or Investment attraction missions to major overseas markets for the purpose of enlarging trade inter-change with foreign countries.

To obtain excellent results in this field, local governments must cultivate local industries with high international competition power, which has high income elasticity in demand and rapid technical innovation. That is to say, oversea’s sales and marketing must be preceded by local goods with high competitive power.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 power of a local economy, social overhead capital such as roads and harbors must adequately provided.

Local industries must be of ‘High-value Production’ after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local governments must be equipped with effective administrative systems and trade policies to support this.

In the past, local industries, regarding domestic markets as target markets and being protected by the Import Restriction Measures, could prosper without any special technical development, but they must now develop new goods to sell in the overseas markets and improve the

---

quality of goods positively in the new age 'Borderlessness' and 'openness'.

In this study, I approache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a desirable trade policy to strengthen the meaning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 inter-change, focusing on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of Chejudo with Japan which annually imports agricultural products equivalent to US\$61.3 billion.

Japan imports more agricultural products than any other country.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nonagricultural products.

First, the producing cen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separated from the distribution companies by distance.

Therefore, distributive costs are expensive, and the security of products is difficult. There may be conflicts such as export credit and risk burden between export companies and producers.

Second, agricultural products are bulky and perishable in comparison to industrial goods if the prices are same. Because they affect the lives of human beings as table use, quarantine inspection is strict and an additional expense is needed in transportation, quality control and package, etc. And it takes a long period of time to develop, retain and enlarge the market because every country has different food cultures.

Furthermore, individual export companies do not induce international market promotion, for brand-naming agricultural products is difficult.

Third, the difficulty of foreign market research, market development and export publicity is caused by the shortage of material resources and specialists as most export companies in charge of ex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are small or medium.

Fourth, export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securing raw agricultural products and developing overseas markets for our agricultural products are low in price competition if the goods have the same qualities.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following strategies for developing trade inter-change policies by the 'Chejudo' local government.

First, to readjust the export organization, strengthen the funct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pose methods of promoting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as a device of enlarging and developing Japanese markets.



Second, to propose a plan of horizontal cooperation of industrial structure and an alternative plan of strengthening price competition power.

Third, to approach a method to solve the current tariff system and non-tariff barriers to solve the trade barriers of agricultural products with Japan.

Last, to suggest an alternative plan to improve the material distribution system, a big burden in trading with Japan, and strengthen

---

the differentiation perce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produced in Chejudo.

In this study, I got the upper results, but in the future we must solve the tasks of the trading and diplomatic affairs as a local unit and enlarge the sphere of cultural interchange, human work, art and sciences, the governing and administering the local governments.

The local governments, one of the main body of multi-dimensional diplomacy, must accomplish economic vitality, heighten the levels of norms, awareness and cultures, and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world society by trading with foreign countries, overseas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 bodies.

In globalizing local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need to keep the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and have the openness and tolerance to accept exotic customs and cultures.

In the end, every norm and rule must be changed imparti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evels but in doing this, the most essential thing is that every local official and inhabitant change individual ways of thinking openly and actively and cultivate the ability of doing the international trading task.

They must have a good command of foreign languages to Communicate with foreigners and to widen the range of mutual understanding.

We must keep in mind that in the globalization of the local area it is not meant that proper thoughts and the culture of the region,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ental property and pride, are to be neglected.

In this point, the generalization and globalization of thoughts and cultures are not regarded as the renunciation of a region and oneself. And we must not accept the foreign civilization without judgement.

It is not desirable for local inhabitants to have the narrow and closed thoughts because of trivial and regional interests and therefore, the local inhabitants must endeavor to make the things of local characteristics globalized for the real meaning of localization is that the local government plays the pivotal and pioneering role in the field of economy, society and the culture through the activation of a region in international society.

